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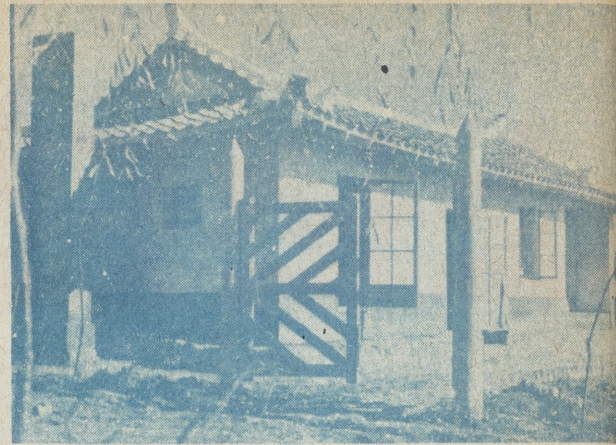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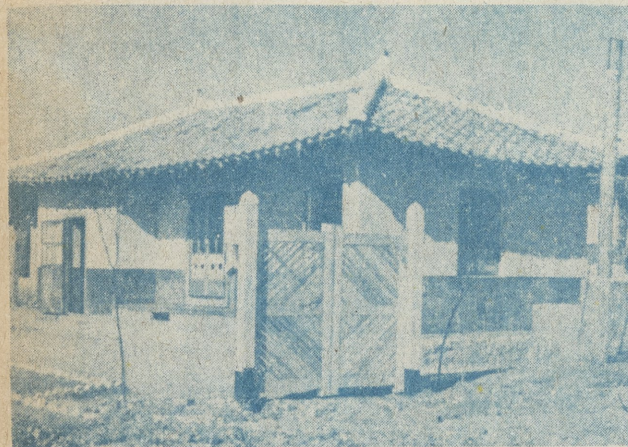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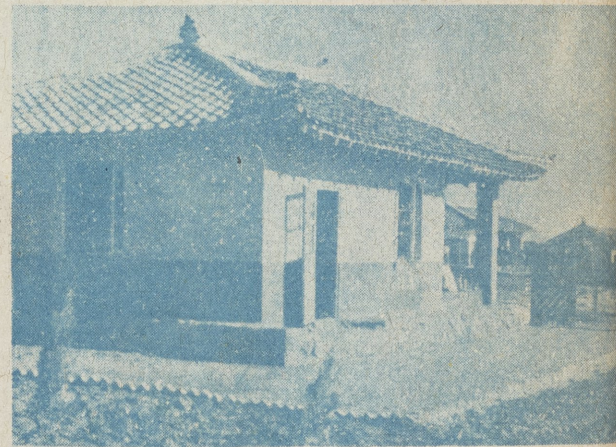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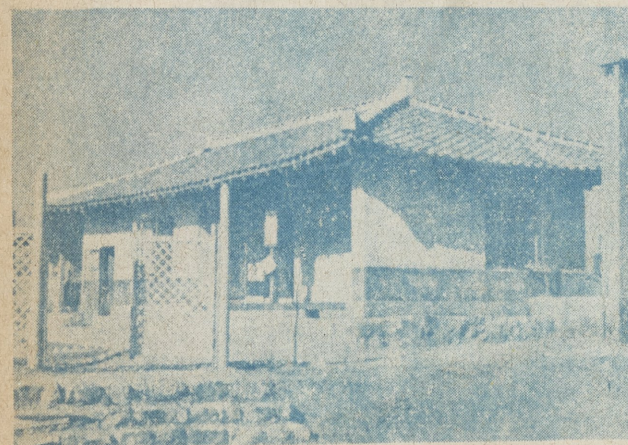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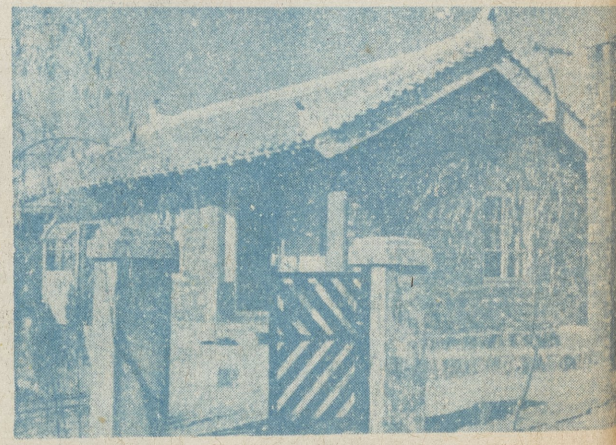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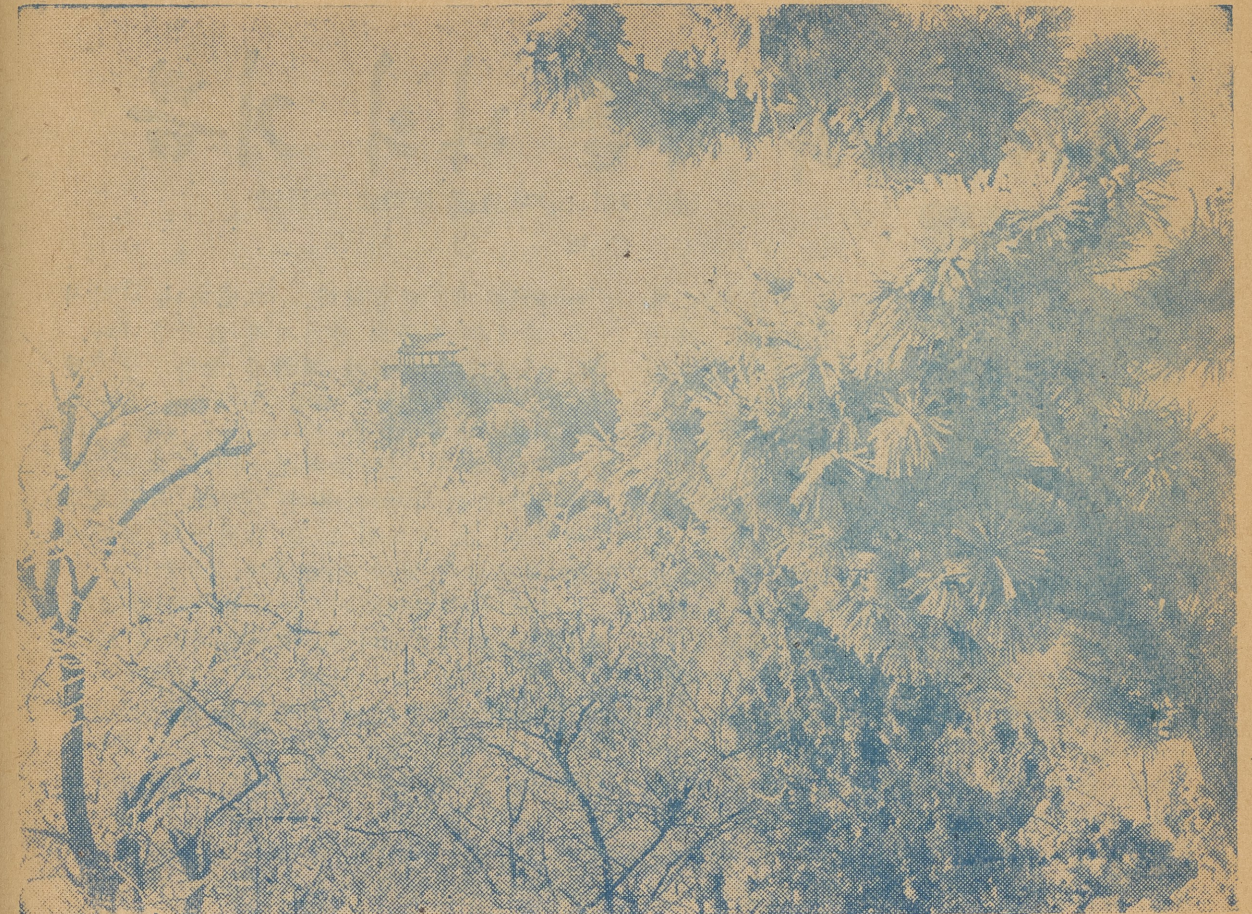
1957.12

앞으로 농촌에 많이 건설될 문화 주택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평양시 송신동에 신축된 농촌 시험 주택들을 보여 주고 있다.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김 일성 수상은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에 20만 채의 문화 주택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나라에서 건설 자재가 넉넉히 생산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농촌들에서는 어떤 집을 지으면 좋을가를 고루고 있다.

3. 제3 호 주택—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은 주택이다. 아래'방과 부엌을 사이로 건넌방이 있어 여러 가지로 생활상 편리하며 웃방에만 마루가 있으나 대신 아래'방을 넓게 쓸 수 있다.

1. 산간형 및 각 도 공통형 제1 호 주택—이 주택은 주로 자강도, 함북도 지방에 맞게 되였는데 다른 지방에도 지을 수 있다. 뒤에는 출입문이 없으나 앞채 광창들이 방마다에 있어 일광 조건에 불편은 없다.

4. 개성형 제4 호 주택—주로 개성 지방을 비롯한 더운 지방에 짓는다. 웃방 앞에 6.2평방 메터의 대청 마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청 마루는 여름 철에 가족들의 훌륭한 휴식처로 될 수 있다.

2. 제2 호 주택—평안 남북도를 중심으로 지은 주택이다. 세방이 연달아 있는데 아래'방과 웃방에는 뒤'문이 있다. 집 터 면적은 130평인데 다른 주택과 같이 퇴비장, 재우리, 돈사가 갖추어져 있다.

5. 제5 호 주택—평남도 지방을 표준으로 건축된 주택이다. 비교적 오붓하고 건설비가 제일 적게 든다. 안'방에는 뒤'문이 있고 창고에는 밖으로 출입문이 있다. 집 터 면적은 122.5평이다.

소년단 12호 내용

—◇—

아버지의 기쁨 나의 기쁨

평양 제1 녀자 고급 중학교 초급반
◇박 양 자◇

우리 아버지는 지금 45세인데 해방 후 내내 개인 사진관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엄하기는 하지만 나나 동생들을 무척 사랑해 줍니다. 아버지는 나의 옷도 신발도 학용품도 잘 사 주고 원족이라도 갈 때에는 돈도 많이 주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해 왔고 또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초급반에 올라 오면서 나의 생각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 배우고 견학하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한 치의 천이라도 더 많이 짜서 나라와 인민에게 리익을 주려는 방직 공장 언니들을 볼 때 나에게는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 앞을 가리웠습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고 묻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 북바치군 했습니다.

나는 점점 아버지가 하시는 개인 사진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많은 동무들처럼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나선 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이 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지어 주는 좋은 옷도 귀치 않았고 아버지더러 돈 달라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희곡 《우리 마을》을 읽고 꽃분이가 되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을 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한 아버지의 낯을 쳐다 보다가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어머니를 거쳐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기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당장 팩하실 줄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직접 이야기해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끝마친 나는 (오늘 꼭 아버지에게 직장에 들어 가자고 이야기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곧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진관을 찾아 갔습니다.

아버지는 암실에서 필림 현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였습니다. 나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데서 만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암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 왔는데 아버지는 《너 왔냐》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 보니 아버지는 몹시 기분이 상한듯한 표정이였습니다. 핀세트를 탁자 우에 휙휙 내 던지는 거로 보아 어머니와 무슨 다툼이라도 한 상 싶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야, 이거 공연히 잘못 왔구나, 괘니 말했다가는…)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왔던 김에 한번 말해 보자고 단단히 마음 다지고 아버지 일을 이것 저것

도와 드리며 이야기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학교에서 바로 왔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성이 좀 까라진 모양이였습니다. 나는 이 말 저 말하다가 《이젠 우리두 직장에나 협동 조합에 들어 가면 좋겠네…》 하고 겨우 혼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대뜸 성을 내시며 《뭐라구? 너도 그 말이구나, 네 엄마도 그러더니…내가 너만 못해서 사진틀을 메고 다니는줄 아니? 내게는 아직 개인업이 좋단다》 하고 나의 말을 막아 버리는 것이 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주의로 나가는데 아버지는 따라 가지 않겠어요. 지금 아버지처럼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저도 모르게 흥분되여 마음에 먹었던 이야기를 쭉 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날더러 건방진 소리 그만 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였습니다. 사실 협동 조합에 든 서문' 거리의 사진관들을 보드라도 살림이 늘어 가는 것이 아버지 눈에도 환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직 조합에 들기를 꺼리는 것은 행여나 남보다 쉽게 한 번 돈을 많이 잡아 볼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나서게 할 때가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이면 아버지와 함께 《인민 조선》, 《쏘련》 화보들을 보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모습과 행복할 앞날에 대하여 꾸준히 이야기해 드렸지요. 뿐만 아니라 인민 군대에 있는 오빠에게도 나는 편지로써 아버지가 어서 직장이나 협동 조합에 들어 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인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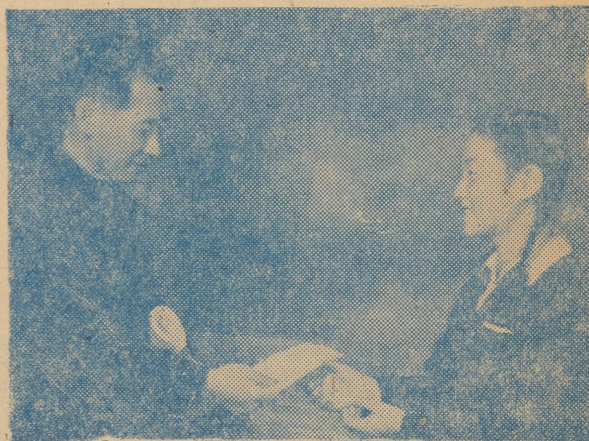
바로 내가 학교에서 돌아 왔을 때 아버지는 여니 때보다 퍽 통쾌한 얼굴로 이웃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잘 바친 모범 상인으로서 아버지가 민주 상인 회의에서 토론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버지! 모범 상인 보다 모범 조합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나는 아버지를 쳐다 보았습니다.

곁에 앉았던 아저씨가 《참 네가 아버지보다 낫구나》 하시며 이야기하자 뒤'이여 아버지가 《저 애들이 이젠 대단하거든, 사회주의 건설이 뭔지 환하단 말이야!》 하는 바람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새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나는 기뻤습니다.

민주 상인 회의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는 매우 상쾌한 얼굴로 방에 들어 서며 《그동안 너희들을 너무 애태워서 안됐다. 아버지는 오늘부터 새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 이 편지에 회답을 써라》하고 두툼한 편지 한 장을 내 앞에 던져 주는 것이였습니다. 편지는 인민 군대에 있는 우리 오빠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곧 편의 시설 생산 협동 조합원이 되였으며 지금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더 없는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
아버지는 오늘부터 새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
이 편지에 회답을 써라
◇

◇ 중앙 민청 학생 소년부장 한 익 수 ◇

동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 방학이 왔습니다.

동무들은 이 방학 동안 진행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계획했겠지요.

소년단원 동무들! 올해의 겨울 방학도 우리는 더욱 보람 있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 방학을 어떻게 하면 더욱 보람 있게 지낼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동무들에게 몇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방학 동안엔 학교에 나오지 않는만큼 소년단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이 즐기는 좋은 일들을 많이 조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방학간에 할 일들을 대 및 분단 모임들에서 의논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 방학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강습에 참가하게 됨으로 고향에 돌아 오는 대학 및 전문 학교와 고급 중학교 형님, 누나들의 지도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대와 분단들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1학기에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져가며 학교에서 내 준 과제들을 꼭꼭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초급 중학교들에서는 각 크루쇼크 사업을 더욱 활발히 조직하며 인민반들에서는 력사 학자, 과학자, 기술자 아저씨들을 모셔다가 어린 력사가 모임, 어린 과학자 모임 등 각종 모임들을 자주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도와 교편물과 실험 도구들을 만드는 일에도 힘껏 참가합시다.

3. 겨울 방학은 여름 방학과 달리 방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됨으로 분단과 반들에서는 책과 신문, 잡지 등을 더 많이 읽도록 하며 읽은책에 대한 이야기 모임, 시랑송, 문학 작품 감상 발표회, 동화, 구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광범히 조직합시다.

4. 분단과 반들에서 전체 소년단원들이 조국의 력사와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 애국자들의 혁명적 애국 전통을 계

속 꾸준히 연구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고적지, 전적지들을 답사하며 박물관, 전쟁 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감상 모임들도 가지며 혁명 투사들과 전투 영웅 아저씨들과의 상봉 모임들도 가지고 그의 투쟁 모범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분단, 반들에서는 근방에 계시는 로동당원 아저씨들과 민청원 형님들을 모셔다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새로운 결정들과 시사에 대한 이야기 모임들도 자주 조직합시다.

5. 문화적으로 휴식하며 몸을 더욱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전체 학교 대 및 분단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즐기는 설상 행군, 분단 및 반별 빙상 경기와 눈 싸움, 도수 체조 등 기타 겨울 체육과 유희들을 광범히 조직합시다.

그리고 예술 경연 대회와 발표회들을 조직하며 설날에는 재미나는 오락 유희와 연예를 조직하고 춤과 노래로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즐기도록 합시다.

6. 농촌 학교 대들에서는 겨울 한철 고공품 생산에 바쁘신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 짬짬히 새끼 꼬기, 자마니 치기도 도웁시다. 그리고 성인 학교 교실을 깨끗이 꾸며 드리며 화독도 피워 드리고 교편물도 만들어 드리면서 성인 학교 사업을 도와 드립시다.

7.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잘 하며 특히 꼬마 선전원의 활동을 방학 동안에 더 한층 높여야 하겠습니다.

구락부와 민주 선전실을 중심으로 농촌 군중 문화 크루쇼크 사업을 힘껏 도우며 군중 무용과 인민 가요들을 광범히 배워 드리며 부근에 있는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과 국영 농목장들에 찾아 가 위안 공연도 자주 해 드립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을 잘 알려 드리며 특히 사회주의 건설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개인 상공업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전망을 계속 꾸준히 선전 함으로써 하루 속히 개인 상공업자들이 직장이나 생산—판매 협동 조합들에 들어가 다 같이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모두다 분단과 반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가하여 겨울 방학을 즐겁고 보람 있게 지냅시다.

거 참 별 일이다

◇ 한 농촌 마을의 이야기 ◇

《보시다 싶이 여기는 산'골입니다. 농사 고장으로야 나쁘지요》

하고 문 의도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말을 시작하였다.

말 그대로 산'골이였다. 작은 개굴 기슭에 펀펀한 논과 밭들이 펼쳐 있고 그것들이 삐쭉삐쭉 솟은 산들에 싸여 있다. 해마다 돌을 주어 냈다는데 아직도 논에서 돌들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이 마을은 자랑이 많았다. 그 자랑이란 옛날부터 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몇해 사이에 이룩된 것이였다.

자강도 장강군 종포리 제1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는 1954년 10월이다. 그 때는 가난한 마흔세 집이였다. 다음 해 봄에 벌써 백열일곱 집으로 협동 조합은 커졌다. 겨울 동안에 새를 하며 가마니 치기 등의 부업으로 협동 조합이 개인 농사 집보다 수입이 많은 것을 농민들은 본 것이다.

《금년에는 지난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랭해가 없었더라면 알곡 분배는 더 많았을 겝니다.

올해 분배는 평균 한 집에서 알곡 두 톤 이상 현금 2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이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동당이 가르치는 대로 한 덕입니다》.

그러면서 관리 위원장은 지금은 몹시 후회하는 봄의 랭상모 이야기를 꺼냈다.

논의 5분지 1에다 랭상모를 하자고 총회에 내 놓았는데 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겨우 10분지 1의 논에 시험 삼아 하게 되여 모판 문틀은 다 짜 놓고도 이 밖에 못한 것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가을이 되자 조합원들은 《랭상모처럼 좋은 것은 없다》고 모두 지난 봄 일을 후회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물모를 낸 논에서는 한 정보에서 1.7톤 났는데 랭상모 한 데서는 3톤 이상 3.5톤까지 즉 거의 두 배의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랭해를 입었어도 풍년 때보다 더 거두었다.

옥수수 농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팥이나 록두를 심는 나쁜 산밭에 옥수수를 심자 하니 종자만 버린다고 많은 조합원들은 야단이였다. 그러나 비료를 주고 잘 가꾸어 온 그 나쁜 땅의 옥수수가 평지의 옥수수보다 더 잘 되였다.

《거 참 별 일이웨다》하고 늙은이들은 입을 벌리였다.

돼지 우리 두 채를 한 채씩 두 해에 걸쳐 지은 것도 그런 까닭이 있었고, 양, 염소, 오리 치는데도 그런 곡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로동당에서 하라는 일은 언제나 옳아! 그저 늙은 것들이 옛날 고집부려 탈이지…》.

하고 늙은이들은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올 가을에 새로 훌륭한 살림 집을 세 채 지였다. 5개년 계획 기간에 마흔 채를 지으면 되는데 그들은 래년에 그것을 다 짓자고 주장하였다.

이 때 유선 방송이 울려 나와 우리의 이야기는 잠간 끊어졌다.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유선 방송은 장강읍에서 끌어 왔는데 60%의 조합원의 집에 설치되였다는 것을 알았다.

포도, 배, 추리, 사과를 심는 과수원 8정보 만드는 것도 찬성이요. 학교 짓는 것, 구락부,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 짓는 것도 찬성이다. 세탁소와 양복점도 찬성이다.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래년에 논 농사는 몽땅 랭상모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얼마전에 좀 잘 살던 열 집이 들어 왔습니다. 농업 협동 조합이 나쁘면야 들어 오겠습니까? 남은 두 집도 들어 오겠지요》.

이 때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에게 소년단원들이 부모들의 낡은 생각을 버리게 하는데 열성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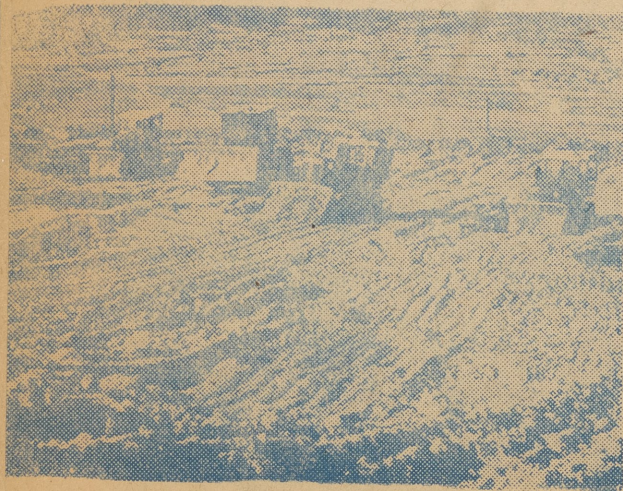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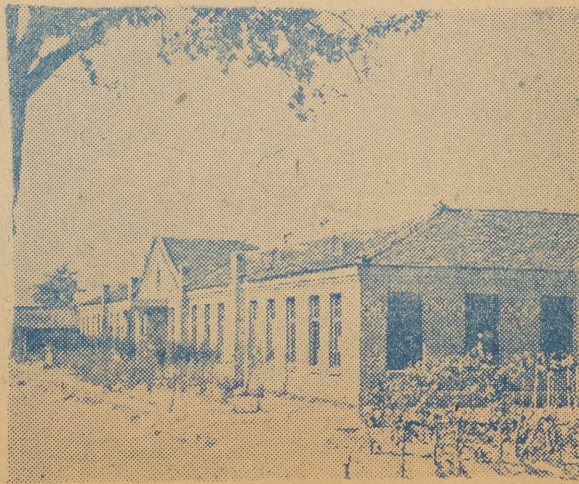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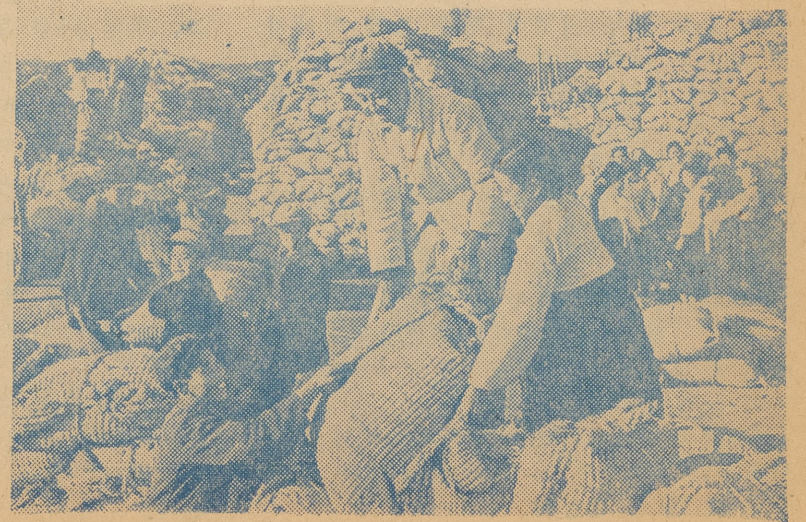
이 잡지에 실리는 김 록연 동무의 작문도 그 때 알게 되여 부탁한 것이다.

탈곡과 추경과 금년도 총화와 새해 농사 준비에 바쁜 이 산'골 마을을 떠나면서 이 마을에서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1957년이 얼마나 위대한 해이였는가를 깊이 느꼈다.

참으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강철같이 단결되여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힘은 로동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여 위대하다.

로동자들이 빛나는 성과를 쌓아 올린 것은 물론이고, 금년도에 농민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또 얼마나 위대한가! 수십 년 동안에 처음인 석달 동안의 가물을 이겨냈으며 랭상모, 륙상모, 옥수수 농사가 승리했으며 협동 조합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난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농민들은 년초에 내 세웠던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였다. 전체 농호 중 90.5%가 협동 조합에 들었다.

새해의 더 큰 승리가 빛나 온다.

↑ 기양 관개 공사장에서

↓ 배천군 금성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 지은 금성 인민 학교

◇ 봉산군 정방리 계동 농업 협동 조합 분배장에서 ◇

작문 나도 자랑하게 되였다

◇ 자강도 장강군 종포 중학교 1학년 김 록 연 ◇

우리 마을은 이 몇 해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참 우리 마을은 몰라 보게 됐어》.

마을 사람들은 협동 조합 이야기를 하다가는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한다.

큰 축사들과 큰 잠실이 생겼고 래년까지 40 채를 짓게 되는 첫 시작으로 올 가을에는 새로 살림 집을 세 집 지었다. 학교 이웃에는 협동 조합 진료소가 생겼다.

나는 학교에 오갈 때 우리 마을의 이 새로운 변화를 본다. 축산 기수가 축산반 사람들과 함께 돼지, 면양, 산양, 오리들을 돌보는 것도 본다.

유선 방송을 끌어다가 집들에 놓았을 때 《이 산'골이 이렇게 발전할 줄이야! 모두 조합 덕택이야!》 하고 동무들은 감탄하며 자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처럼 떳떳이 우리 마을을 자랑할 수 없었다. 내가 나서부터 살아 오는 마을이지만 마을이 제절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조직된 종포 제1 농업 협동 조합이 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협동 조합이 조직된지 3년이 되도록 우리 집은 안 들었으니 나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학교 공부 시간에 협동 조합 이야기가 나와도 나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 같으면야 협동 조합이 처음 조직될 때 들었겠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4학년 때는 몇 번 협동 조합에 들자고 말하기보다는 졸라봤다.

《여지껏 협동 조합 안 해도 밥 먹었다》 그 때 할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예 이런 마음이여서인지 협동 조합이 쏘련의 꼴호즈처럼 살기 좋게 된다고 이야기해 드려도

《농사해 밥 먹기는 마찬가지야》 하고 할아버지는 잘 살게 된 나라의 은혜를 감감 잊은 것 같이 말했다.

그 때는 처음이여서 협동 조합에 안 든 집도 많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말하면서 내 말에는 귀도 귀울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그렇지도 않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5학년을 졸업하고 올해에 초중 1학년이 되는 사이에 협동 조합 살림은 굉장히 늘었다.

협동 조합에서 해 놓은 일을 하나하나 들면서 빨리 협동 조합에 들자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협동 조합 일에 대하여 그 전처럼은 대하지 않았다.

그동안 강계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삼촌도 할아버지에게 협동 조합에 드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가리킨 대로 눈으로 보지 않는가고 말했다.

벌써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협동 조합에 들겠다고 빨리 말을 떼였으면 하는 눈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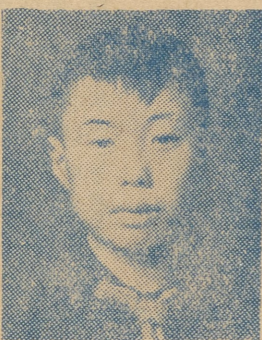
어머니에게 협동 조합 이야기를 꺼내면 《더 졸라 보렴 이제는 들게다》라고 한다.

그 다음부터는 조르기도 했다. 기쁜 날이 왔다. 숙제를 필하고, 밖에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다.

할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돌아 왔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오늘 협동 조합에 들었다, 됐냐?》하시는 것이였다.

들려 오는 소식을 들으면 할아버지가 협동 조합 총회에서 《내가 우리 손자만도 못했나 보오, 내 손자 녀석은 벌써부터 들자는걸…》하고 내 자랑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도 우리 마을을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게 되였다. 돼지, 면양, 산양, 오리들이 있는 축사에도 자주 가 보게 된다.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키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고성 소년 빨찌산 투쟁기—

◇ 최 옥 선 ◇

며칠째 한 영국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 오면 아버지를 따라 가리라!》.

한 영국은 이것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버지는 길이 막혀서 돌아 오지 못했다.

마을에는 벌써 미군이 밀려 들었다. 놈들은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 내기에 눈이 뒤집혔다. 놈들은 학교도 불태웠다. 분단끼리 반들반들하게 닦기를 내기하던 교실은 간데 없고 책상, 걸상이 놈들의 발'길에 나 딩굴었다. 무서운 광경이였다.

그러나 한 영국은 처음 마음 먹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소년단 위원장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따라갈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로동당원 아저씨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빨찌산을 조직하며 산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아 내였다.

그러나 한 영국은 빨찌산을 따라 가지 못했다. 떠나는 시간도 집합 장소도 그에게는 비밀이였기 때문이다.

(아마 난 어리다고 안 데려 가는 모양이지…)

여기서 한 영국은 빨찌산들이 놀랠만한 일을 해 가지고 찾아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한 영국은 처음 정래범, 한 유현이와 만나 자기 생각을 비쳐 봤고 찬성을 받자 한 동식까지 끌여 들여 소년 빨찌산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남강 기슭 모래불에 모여서 끝까지 적들과 싸울 것과 비밀을 지킬 것을 서로 맹세하였다.

밤이 되면 언제 장난 치던 소년들인가 싶게 소년 빨찌산들은 엄숙해진다.

그들은 적들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들어 낼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둠을 타서 무기고를 향해 떠났다. 무기고에는 보초놈이 서 있었다. 소년들은 무기고로 기여 들려고 이모 저모 살펴 보았으나 좀체로 구멍수가 없었다.

첫 계획은 실패되고 말았다.

첫 사업에서 실패를 겪고 난 그들의 마음은 몹시 쓸쓸했다. 그들은 치안대 사무실 쪽에서 울려 나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 소년들은 귀를 바짝 기우렸다. 《치안대장》이 상부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였다. 래일 아침 빨찌산을 토벌하려 여기 《치안대》도 같이 유점사 쪽으로 떠나야 하겠다는 지시였다.

(이 일을 어쩌나?) 소년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뿐이였다.

(빨찌산에 알려야 한다. 이 밤중으로!)

다음 순간 소년 빨찌산들은 유점사를 향하여 달리였다. 얼마나 달리였는지 모른다. 어두운 숲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아 서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빨찌산 정찰병들이였다. 거기엔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다.

다음 날 저녁, 마을에는 귀'속말이 떠돌았다.

빨찌산 토벌을 떠난 놈들이 방어사 고개에서 몰살 당했대… 자동차도 부서지고…응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화도 끊어지고 해서 몰살을 당했대…

이 사건이 있은 후 놈들은 온 마을을 발칵 뒤지며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감방은 마을 사람들로 차고 넘었다.

그 속에는 영국이와 그의 빨찌산 대원들도 있었다.

모진 고문이 계속되였다. 고문에 끌려 나갔던 사람들은 반죽음이 되여 들어 오군 하였다.

소년들도 고문에 끌려 나갔다.

놈들은 어린 소년들의 등곬에 사정 없이 채찍을 내려 쳤고 손톱 눈에 참대 바늘을 쑤셔댔다.

《빨찌산에 련락했지? 전화 줄을 끊었지?》.

그리고는 또 때리고 쑤셔대군 하였다.

그러나 소년들의 입을 열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서였다. 고성 빨찌산에 숨어 들었던 반동인 《구가》라는 놈이 토벌대가 출동한다는 것을 빨찌산에 련락한 것이 영국이라는 것을 일러 바쳤다.

그 후부터 영국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모진 고문이 계속되였다.

그래도 영국이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어린 몸이 고문을 못이겨 정신 잃고 쓰러지면서도 《나혼자 뿐이다》 이 한마디를 외울 뿐이였다.

어느날 저녁 영국이의 사촌 녀동생 영순이가 밥을 가지고 영국이한테 왔다.

영국이는 이제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다 매맞아 붓고 불에 지지워 쪼그라든 그의 얼굴은 옛 모습을 찾아 볼 길이 없었다.

영국이가 몇 숟가락 밥을 들었을 때 《치안대》놈이 인기척이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가 바깥을 내다 보고 있었다.

이 순간 영국이는 품 속에서 둘둘 말린 종이 묶음을 얼른 꺼내서 밥 그릇 속에 꾸겨 넣었다. 영순이는 재빨리 그릇 뚜껑을 닫았다.

《영순아 이것을 내 동무들에게 전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두 눈은 빛나고 있었다.

영순이네 집엔 유현이를 비롯한 영국이의 동무들이 와 있었다. 영순이는 영국이가 보낸 종이 묶음을 내 놓았다.

종이 묶음에는 영국이가 즐겨 읽던 책 《빨찌산의 딸》과 영국이와 그의 동무들이 빨찌산을 조직할 때 다진 맹세가 적혀 있었다. 《비밀을 생명처럼 지킬 것, 해방되는 날까지 죽음을 두려워 말고 싸울 것……》 영국이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동무들이 따라 읽으며 바른 손을 들어 소년단의 경례로 다짐하던 맹세였다.

소년 빨찌산을 조직하던 그 날밤을 회상하며 《비밀을 생명처럼 지킬 것, 해방되는 날까지 죽음을 두려워 말고 싸울 것…》 입 속으로 맹세를 외우는 그들의 눈은 새'별처럼 빛났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는 소곤소곤 소문이 떠돌았다.

후퇴하는 인민군 아저씨들이 금강산 골짜기에 와 있다고… 인민군 아저씨들은 마을을 정찰하고 있다고…

요새 와서 놈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 없었다. 그러나 놈들은 최후 발악으로 애국자들을 계속 잡아다 죽이기에 날뛰였다.

소년 빨찌산 동무들은 한시 바삐 인민군 아저씨들을 찾아가 마을의 사정을 알려 드리고 영국이와 마을 애국자들을 구원하자고 결심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가까운 금강산 쪽을 향하여 떠났다.

벼랑길을 기여서 고개를 넘고 넘어 밤새도록 달리였다.

마을을 해방시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인민군 부대는 빨찌산 소년들의 련락을 받고 이 날 밤으로 마을에 진공하여 놈들을 쳐부시였다.

빨찌산 소년들은 가슴이 터질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영국아!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왔다》 웨치며 감옥 안으로 뛰여 들어갔다.

그러나 영국이는 없었다.

벌써 그 때는 놈들이 달아나면서 영국이도 끌고 간 다음이였다.

놈들은 영국이를 영낭 호수'가에 끌어내다 총살했다.

호수'가에서 살아 남은 심 로인은 영국이가 끝까지 공화국 만세를 마지막 말로 남기였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눈물로 전하였다.

강원도 해방 투쟁 박물관에는 영국이의 투쟁 기록과 함께 학교 때 받은 표창장과 최우등의 성적증들이 진렬되여 있다. 동무들이 이 글을 읽을 즈음에는 여기에 실린 그의 사진도 그 곳에 진렬될 것이다.

지난 10월 하순의 일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학교에 나오던 김옥회 동무가 이상하게도 이틀색이나 결석하였습니다.

열성자들은 곧 한데 모여 의논하고 6반 반장 정 옥선 동무에게 그 리유를 알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일시적 후퇴 시기에 옥회의 아버지는 놈들에게 붙잡혀 리 인민 위원장을 했다는 《죄》로 학살 당하였습니다. 그 후 옥회의 두 오빠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조국 땅에 불질러 놓은 미군놈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인민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옥회의 언니도 펜을 총으로 바꿔 쥐고 전선에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옥회는 어머니와 단 둘이 집에서 살게 되였습니다.

올 가을에 옥회네는 새 집을 짓게 되였습니다. 물론 협동 조합의 방조로 기둥을 세우고 연목까지 걸었으나 추수에 바쁜 조합만 바랄 수 없어 어머니와 함께 옥회는 이틀 동안 흙을 파 날랐던 것입니다.

6반 반장 정 옥선 동무에게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분단 위원회는 곧 전체 분단 동무들에게 옥회네 집'일을 도와 나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분단에는 이틀 사이에 벼'짚 250단 수수'짚 9단 새끼 500m가 수집되였습니다.

47명의 전체 분단 동무들은 일요일 날에 수집된 물자들과 흙 운반 도구를 가지고 옥회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흙을 나르고 진세도 치고 외엮기까지 말끔히 해 놓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의 고마운 행동에 감격한 옥회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함남 영흥 제1 고급 중학교 대 10분단에서

(통신원 민 외순)

1.

아이들은 와짝 떠들면서 교문을 나서자 제각기 대 여섯명씩 패를 지어 헤여졌습니다.

인민반 4학년생인 선철이도 명식이와 같이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얼마 떠러진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얘 우리 군인 아저씨도 휴가 왔어》라고 선철이는 해죽해죽 웃으면서 명식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웬 아저씨 말이냐?》 명식이는 선철에게 아저씨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남에 있던 친척 아저씬데 휴가 받구 놀려 왔어, 그런걸 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선철은 제법 으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래…그럼 나도 같이 가 보자 응》.

그들이 선철네 집에 왔을 때는 어머니는 아직 조합에서 돌아 오시지 않았고 군인 아저씨는 방 웃목에서 트렁크에 쇠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선철이는 깍듯이 첫 인사를 했습니다. 명식이도 따라 했습니다. 선철인 어제 저녁 비를 맞으며 비전사를 하고 곤히 잠 들어서 아저씨가 온 줄도 몰랐고 아침엔 아저씨가 일어나지 않아 인사를 못하고 학교에 갔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트렁크를 구석에 밀어 놓고 《어! 선철인가 참 몰라 보게 컸구만》 하면서 웃는 낯으로 두 소년을 빤히 쳐다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앞 이마가 뽈뚝 나오고 두 눈은 움푹 기여 들어 갔습니다.

《아저씨 얘는 우리 마을에 있는 동문데 이름은 명식이야요》선철이는 명식이를 돌아다 보며 아저씨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어서들 앉아라 공부를 잘 하니》.

두 소년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으나 한 두 마디 말을 주고 받는데서 허물 없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아저씨 명식이 형님도 군대에 있어요》.

《그래! 언제 한번 왔댔냐?》.

《봄에 왔다 갔습니다》.

명식이의 대답이 끝나자 마자

《명식이 형님도 군관인데 비행사야요》 하고 선철이가 보태였습니다.

《나도 항공대에 있었는데…형의 이름이 뭐냐?》.

《김 명호입니다》.

《김 명호라……듣던 이름 같은데 편지 주소를 아냐?》.

《저……잘 모르겠습니다. 집엔 며칠전에 온 편지가 있어요》.

《그럼 요 다음 올 때 가지고 오렴. 사진두 내가 보면 알 사람 같애》.

《예!》.

《그럼 아저씨는 비행기 타 보셨나요?》

소곳이 앉아서 아저씨와 명식이의 말을 듣고 있던 선철이가 불쑥 나 앉으며 말참견을 했습니다.

《타 보구 말구, 비행기 타 보고 싶으냐?》

아저씨는 웃음을 지으며 선철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예 비행기 타시던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철이는 아저씨 턱 아래 바싹 다가 앉으며 졸라 댔습니다.

《그래 차차 말하지 너는 내 이야길 한꺼번에 다 들으려니, 래일도 모레도 해야지 응 그렇지》.

이 때 선철이 어머니가 조합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그들의 이야기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식이도 그 때에야 해가 넘어 간 것을 깨닫고 군인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선철이는 아저씨와 같이 바다'가로 나갔습니다. 씨원한 바다 바람이 안겨 왔습니다.

아저씨는 바다'가 경치에 마음이 끌려서인지 바다 기슭 좌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습니다.

선철이는 아저씨와 함께 한바탕 멱을 감았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 아저씨는 무척 기분이 좋아 하면서

《얘 밤에 나와도 괜찮으냐?》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달밤에 이따금 놀러 나왔어요》 하고 대답하는 선철이의 마음도 어느듯 가벼워졌습니다.

《경비 보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냐?》.

《순찰원 아저씨에게 한번 이야기 들은 다음부터는 안 나왔어요》.

이 때 먼곳에서 명식이가 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선철이네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두 소년은 아저씨와 같이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헤여졌습니다. 헤여질 때 아저씨는 선철이에게는 만년필을, 그리고 명식에게는 좋은 수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명식이도 그랬거니와 선철이는 고마워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에 명식이가 형님의 편지와 사진을 책 갈피에 끼워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보고 계시던 아저씨는 명식이가 내 놓는 편지와 사진을 반가히 받아 한 옆에 놓고

《내 보던걸 마자 보구 같이 보자》 하면서 읽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철이와 명식이도 책상에 마주 앉아 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얼마 후 아저씨가 밖으로 나간 새에 깜빡하고 전기 불이 꺼졌습니다. 방안은 갑자기 먹장같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철이는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마을에는 전기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선철이는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는 벌써 곤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선철이는 손더듬을 해서 석냥을 찾아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혀 전구를 살펴 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전구는 잘못된 곳이 없었습니다.

두 소년은 밖으로 나와서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어째 그러냐》 아저씨는 변소에서 나오며 허리 띠를 졸라 매고 있었습니다.

《전기 불이 꺼졌습니다. 저 쪽 마을엔 그냥 있는데요》 하고 두 소년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전구가 끊어진게로구나》.

《아닙니다. 전구는 방금 봤는데 일 없습니다》.

《그럼 어데가 잘못 됐나…전기 다룰줄을 알아야지 더구나 캄캄해서……》.

《아저씨께 전지 있지요? 어데 잘못 됐나 좀 찾아 보겠어요》 선철이는 자신이 있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래일 아침에 보자, 밤도 깊었는데……》. 하고 하품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두 소년은 큰 일 났습니다. 아직 숙제가 그냥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명식이는 난처한듯 눈만 깜박이다가

《선철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응》 하고 선철이와 아저씨를 쳐다 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좋겠구만 응》 하고 아저씨는 그들이 책을 거두어 가지고 가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명식이가 가져 온 편지와 사진은 래일 저녁에 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선철이가 집에 돌아 왔을 때는 전기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휴—즈〉가 끊어진 것을 이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선철이는 아저

씨와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선철이는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며시 열리였습니다. 선철인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순간 그것이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본 그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선철이는 아래 우로 아저씨를 훑어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군복 바지 아래도리가 후질군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철이는 《아저씨 어데 갔댔어요》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웅 웅 한 부대에 있는 친구가 휴가로 같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 여기 들리겠다고 했어, 그래 오는가구 정거장에 마중 나갔더니 안 왔구만》하면서 물에 잠궈낸듯이 젖은 군복 바지를 얼른 벗어서 구석에 밀어 놓고 자리에 눕는 것이였습니다. 선철이는 자리에 누우면서 《길을 잘못 들었던 모양이지……큰 길로 갔으면 저렇게는 안 젖었을걸……》하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3.

유달리 더운 날씨가 계속되였습니다. 밤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던 선철이는 더위에 못이겨 어렴풋이 잠에서 깨였습니다. 바로 그 때 방 웃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며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선철은 아저씨가 또 정거장으로 가는 줄 알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변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둠 속에 저으기 익숙해졌을 때 꾀그나 먼 앞쪽에서 바삭바삭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저씨 같은데…혼자 멱 감으려 나가는게지……》.

선철은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곧 누웠습니다. 혼곤히 잠이 들었을 때 그만 개 짖는 소리에 또 다시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선철이는 단잠에서 깨여난 것이 슬그머니 부아가 나서 〈음흠〉하며 뒤처 누었습니다. 그러자 웃문이 방싯 열리고 아저씨가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 참 맹랑한걸》아저씨는 선철이가 깨난 것을 알았는지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봤는데 왜 정거장에 갔다 온듯이 나를 속이려 할가?〉

선철이는 암만해도 이상하게 생각되였습니다. 별별 짓을 다하는 간첩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잡아 내야 한다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 올랐습니다.

아침에 그는 어머니가 조반 짓는 부엌으로 내려 갔습니다.

어머니는 부굴부굴 끓는 가마'물을 우둑하니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선철이는 마치 무슨 큰 비밀 이야기라도 할 것 같이 집안 동정을 살피고 나서

《어머니, 아저씨가 수상해요. 밤마다 나가는데 정거장엘 나가는게 아니라 바다'가에 나가군 해요》하고 작은 소리로 소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넌 별걸 다 의심하는구나 캄캄해서 길을 잘못 들었겠지 뭐》하고 말하였습니다.

선철이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아저씨가 응응 하며 돌아 눕는 소리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날 아침 선철이는 명식이와 같이 학교 가는 길에서 아저씨가 수상한 사람이란 것을 자기가 본 것과 생각되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명식은 선철의 말을 곧이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선철이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은 명식이도 선철네 집에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트러지고 말았습니다. 명식이 어머니가 저녁 때부터 갑자기 앓아 눕게 되여 명식이는 집을 못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 날 밤 선철이가 잠에서 깨여 났을 때는 이미 아저씨는 방에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웃목을 살펴 보았더니 아저씨의 트렁크도 보이지 않았고 군용 가방만이 벽에 걸려있을 뿐이였습니다. 선철이는 겁이 덜석 들었습니다.

《애 너 정신이 나간게로구나 자다 말구 뭘 그러구 섰니 응》.

자고 계시는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하는 말 소리에 선철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다음 순간 겁에 질렸던 마음도 저으기 가라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엔 트렁크까지 들고 나갔어요》하고 근심어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그래?!》하고 몹시 놀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성글성 고였습니다. 선철이의 마음도 역시 서글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놈들에게 끌려 남으로 나간 후 어머니는 어린 선철이 하나를 믿고 살아 왔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선철이를 귀여워 하였고 선철이 역시 어머니를 몹시 따랐습니다. 밤새 선철이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뒤채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따금씩 돌아 누우며 긴숨을 쉬는 것으로 보아 주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벽 시계가 새로 두 시를 알린지도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웃문이 열리더니 아저씨가 들어 왔습니다.

그는 곳 자리에 누웠고 선철이도 어느듯 색색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철의 어머니만은 날이 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가(군인 아저씨) 선철이 아버지 이야기를 늘어 놓으며 선철이 아버지가 보낸다는 편지까지 내 놓는 바람에 집에 들인 것이 지금에 와서는 크게 후회되였습니다.

아침에 선철이가 깨여났을 때 첫 눈에 뛰운 것은 트렁크였습니다.

때마침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철이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열어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 올라 밖의 동정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다가 갔습니다.

트렁크에는 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교문을 들어선 선철이는 곧 담임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는 담임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오면서 선생님이 전화기 곁으로 다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

밤엔 명식이도 선철이네 집에 와 있었습니다. 두 소년이 한 밤을 서로 엇바꿔 자며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명식이도 어머니도 아저씨도 잠든지 얼마 되였습니다. 밤 12시도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자는 척하는 선철이에게도 얄미운 졸음이 못 견디게 달라 붙었습니다. 선철은 졸음과 싸우기에 모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르르 저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삐꺽〉하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사박사박 들렸습니다. 선철이는 아저씨가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리는 비여 있었습니다. 선철이는 다급히 명식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밖으로 뛰어 나온 두 소년은 검은 그림자를 퍼그나 앞 세우고 살금 살금 뒤따랐습니다.

명식이는 선철의 곁에 바싹 붙어 가며 달달 떨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길 옆 숲속에 쪼구리고 앉아서 그림자가 사라진 곳을 눈뿌리가 아프도록 쏘아 보고 있었습니다. 명식은 그냥 달달 떨고 선철이도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슥해서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서 전지 불이 깜빡깜빡 두번 비쳤습니다. 그들은 일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신호다 신호야》명식이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소군거렸습니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지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두번 전지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벌써 닭 울음소리가 자주 들려 왔습니다. 두 소년의 옷은 이슬이 내려서 젖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바삭바삭 발 자국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두 소년은 숲 속으로 기여 들어가 발자국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검은 그림자가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아저씨》를 멀리 지내 보내고 급기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 온 아저씨는 두 소년이 없어진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소년들이 자기 뒤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당황해진 그는 그 길로 도망치려고 트렁크며 가방이며 걸어 안고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때 두 소년이 집에 다달았습니다. 흠칫 놀라며 몇 발자국 뒤'걸음치던 그 놈은 소년에게 승냥이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하늘에 두 소년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밖으로 뛰쳐 나온 선철이 어머니는 마

당'가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급히 토방에 걸어 둔 호미를 들고 그 놈의 대갈통을 내려 갈겼습니다. 그러나 호미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년 움짝 말아!》 권총이 어머니의 가슴을 노렸습니다.

이 때 이미 그 놈의 뒤를 따르고 있던 내무원 아저씨들이 달려 들어 그 놈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꽁꽁 묶었습니다.

내무원 아저씨들은 벌써 그 놈이 이곳에 들어 온 날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 *

선철이는 해가 퍼져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곁에는 어머니,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분주소장 아저씨, 명식, 그리고 위생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철이는 나직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선철아!!》 어머니는 덮치듯 선철을 끌어 안고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잠시 후 선철이는 분주소 아저씨의 말씀에 의해서 그 놈이 간첩 두목의 길 안내를 위해서 먼저 기여든 적의 간첩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놈은 군사 비밀과 해안 경비 정형을 무전으로 자기 본부에 알리려고 했으며 명식이 형님의 사진과 주소를 한 장 복사하고 또 남으로 나간 사람들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학교 《꼬마 악단》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가 조직한 《꼬마 악단》이 큰 자랑꺼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생활을 명랑하고 씩씩하게 해 주는 연예 사업을 활발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기가 없어서 좀 잘 되여 나가다가도 이어 풀이 죽군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소년단》 잡지에서 악기 만드는 법을 본 우리는 악기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였으나 차차 여러 개의 악기를 만드는 동안에 재주도 늘어 친선금, 만도링, 행금, 퉁소, 쌍피리, 양금, 키타 등 60개의 악기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내게 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총탄 깍지를 길게 짧게 순서로 조롱조롱 련달아 만든 것이며 통조림통에 팥을 넣고 아궁을 막은 다음 손에 들고 흔드는 것, 소총탄 깍지 두 개를 맞붙여 만든 것 등 새로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을 협동 조합에서 하모니카 몇 개와 시 교육부에서 키타 한 개를 보내 주어 훌륭한 《꼬마 악단》이 조직되였습니다.

우리의 《꼬마 악단》은 벌써 김 일성 장군의 노래, 소년단 행진곡, 적기가, 봄 노래, 돈돌라리 등 아홉 가지의 곡을 훌륭히 연주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꼬마 악단》은 협동 조합 부모님들 앞에서도 여러번 공연을 가졌습니다.

판문군 평화 인민 학교 대 위원장
리 환 준

첫 두달 동안에

◇최 화 규◇

새로 선거된 대 위원회에서는 으뜸가는 임무인 학과 학습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면서 《끄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총화하고 각 크루쇼크의 겨울 차비를 하며 아울러 추수에 바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일을 도우며 협동 조합을 견학하는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 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 주년을 뜻깊게 맞기 위한 《친선 야회》, 《독서 이야기 모임》, 《분단 써클 경연 대회》, 《분단별 체육 경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　　　　*

각 크루쇼크들에서는 대 위원회에서 계획한 겨울 차비에 바빴습니다.

실습지에서는 추경을 하기 시작하였고 온실에는 겨울에도 실험 관찰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식물의 씨앗들을 파종해 놓았습니다. 동물 크루쇼크에서는 닭우리와 토끼 우리를 수리하였으며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공작실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 위원회에서는 가축들이 겨울을 날수 있는 충분한 사료를 장만하기 위하여 분단들에서 락곡을 수집하게 하였고 공작 크루쇼크에서 필요한 대패와 톱 등 도구들은 페품을 팔아 마련했으며 새로운 서적들을 수집하여 도서실도 보다 훌륭히 꾸려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대 벽보 편집부에서는 못쓸 톱을 줄로 쓸어 사용할 수 있는 톱으로 만든 김 찬호 동무의 이야기와 《고체 팽창의 실험》을 진행한 물리 크루쇼크의 활동을 벽보에 실었습니다.

이렇듯 크루쇼크들의 활동은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는 사업 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들이 잘 되여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끄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총화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결함들을 찾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크루쇼크 활동에는 일부 동무들만 참가하고 전체 동무들이 실험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로동을 싫어 하는 동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협동 조합의 추수를 돕는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옥수수나 콩을 볶아 먹기 위하여 주머니에 넣고 오는 동무들이 나타났던 것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단 열성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고쳐 주기 위한 사업들을 조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에서는 분단 열성자들을 위한 강습과 분단 열성자들의 사업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였습니다.

곧 대 위원회에서는 《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열성자들이 할 일》, 《흥미 있는 모임》 등의 제목을 가지고 강습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분단 열성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제1 분단과 제2 분단에서만 하여도 그 후부터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소년단원인가》, 《나의 해바라기는 어떻게 자랐는가》 등의 제목으로 흥미 있는 모임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반 동무들의 분단인 8, 9, 10분단들에서는 분단 열성자들이 자기 분단 실정에 알맞는 사업들이란 어떤 일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에서는 대 위원들에게 이 분단들을 직접 도와 줄 것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대 위원들은 분단 열성자 모임에 참가하기도 하고 분단 동무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그 분단에서 고쳐야 할 일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9분단을 맡은 김 영자는 그들 속에서 김 확실이와 홍 길녀가 분단 사업에 애를 먹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상학 종이 울려도 떠들며 학습에 태공하며 일에는 참가하기를 싫어 하는 동무였습니다.

김 영자는 그들에게 소년 신문에 계재된 《생지옥 속에서 허덕이는 남반부 소년들》과 《암흑 땅의 남조선에서》 등을 읽고 이야기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확실이와 길녀는 우리들이 행복하면 할수록 학습을 더 잘하는 것이 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남반부의 불행한 소년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 위원들의 도움으로 분단의 사업들은 잘 되여 갔습니다.

그러나 소년단원 동무들 가운데서는 로동을 싫어 하는 동무들이 그대로 간간이 나타났습니다.

《끄마 과수원》을 만드는 날이였습니다. 제7 분단 김 길석이와 신 요왕이를 비롯한 몇 명의 동무들이 배나무 묘목을 운반할 위임을 받고도 빼소니쳤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이처럼 생기는 결함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대 위원회는 생각했습니다.

대 위원회에서는 여러 동무들과 의논 끝에 우선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여야 한다》 타는 제목으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로력 혁신자와 상봉을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대 벽보 편집부에서는《로동을 사랑하자》는 내용으로 특간호를 발간하였고 각 분단들에서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된 다음 대 위원회에서는 수절 림산 사업소에서 로동하시는 로력 혁신자 김 진화 아저씨를 모시고 우등'불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찍은 나무들이 도시와 농촌으로 운반되여 새로운 집,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되는 것을 볼 때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라고 하신 김 진화 아저씨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끌게 했습니다.

우등'불 모임에서 동무들은 로동자 아저씨들의 일을 돕는 유익한 일을 할 것을 대 위원회에 제의해 왔습니다.

대 위원회에서는 이 제의를 받고 곧 소발구 길을 닦는 림산 사업소 로동자 아저씨들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작업은 시작되였습니다. 분단과 분단, 반과 반 사이에 경쟁을 하면서 소발구 길을 닦았습니다.

특히 7분단에서는 가장 어려운 비탈길을 솔선 맡고 어느 분단보다도 모범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단 동무들도 서로 도와 주고 서로 힘든 일을 맡아 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나섰습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대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서나 먼저 여러 동무들에게 그 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갖게 하는 교양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것입니다.

두달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란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체육 대회》, 《친선 야회》, 《분단 써클 발표회》 등도 잘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적을 높이는 사업을 잘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11월부터는 먼저 소년단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가를 옳게 알려 주면서 모두 학과 학습에서 높은 지식을 갖게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자강도 화평군
가산 중 학교 대
에서

더 아름답고 더 빠르게

지난 10월 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에서는 기본 건설 사업에서 현대적인 조립식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도시와 농촌의 문화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조립식 방법—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을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서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에 건설되고 있는 3층 주택(24 세대) 과 같은 건물 1동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립식 건설은 벽돌을 쌓아 올려 건설하던 방법에 비하여 약 30%의 건설비를 절약하고 건설 로력도 3분지 1이나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도 공사 기일을 4분지 1이나 앞당겨 완수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각 건설 트레스트와 건재 공장 로동자, 기술자 아저씨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건설에서 현대적인 조립식 방법을 더욱 광범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기본 건설의 40% 이상을 조립식으로 하게 되며 그 중 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의 주택 건설은 80~100%까지 조립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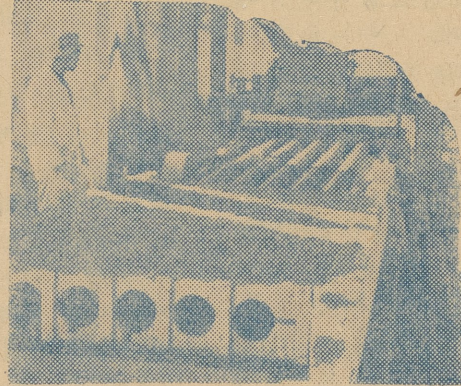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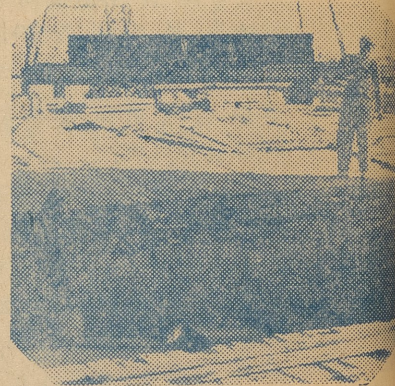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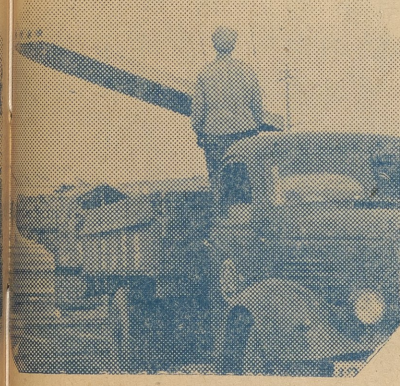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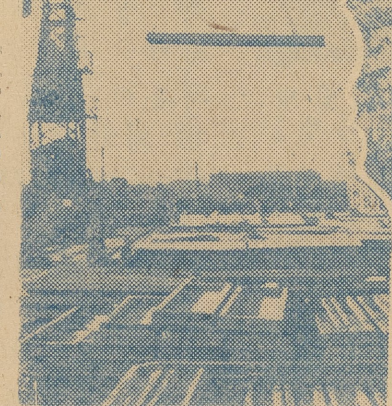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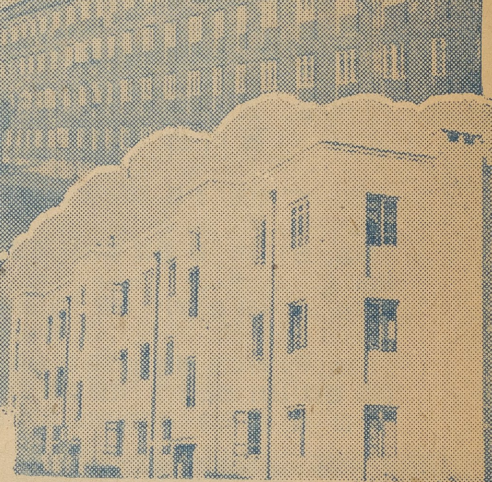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문화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으로 급속히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도시와 로동자구들에 720만 평방 메터의 주택을 국가 자금으로 건설하며 동시에 로동자, 사무원, 개인 상공업자 등 전체 도시 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과 기술로 지방 자재를 리용하여 서로 도우며 자기들의 개인 주택들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농촌에서는 광범한 관개 하천 공사들을 진행하며 20만 동 이상의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농촌 건설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인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주택을 지으며 학교, 관개 수리 공사, 교량 등 건설하는 사업을 기술적으로 도와 주며 건설에 필요한 목재, 철재, 세멘트, 기와 등 자재들을 국가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10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도시와 농촌에서 건설 사업이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①부로크 생산 공장에서는 자갈과 모래와 세멘트가 베르트 콤베야에 실리여 미끼샤라는 기계에 들어 가 일정한 비률로 혼합된다.

②미끼샤에서 혼합된 원료는 다시 철근이 들어 있는 휘틀 일정한 형 속에 들어가 규격 대로 부로크형이 만들어 진다.

③이 부로크형은 천정 크레잉에 의하여 증기 가마 속에 들어 가 24 시간 동안 쪄 내면 완성된 부로크로 된다.

④완성된 부로크는 부재 공장 소형 기중기로 자동차에 실리여 건설장들에 운반된다.

⑤건설장에 운반된 부로크는 규격 별로 일정한 장소에 하차되고 건설장 탑형 기중기에 의하여 웅장한 건물로 조립된다.

⑥동평양에 건설된 조립식 건물들

건설되는 우리 나라 도시들

건설되는 우리 나라 도시들

평양시

남포시

해주시

정희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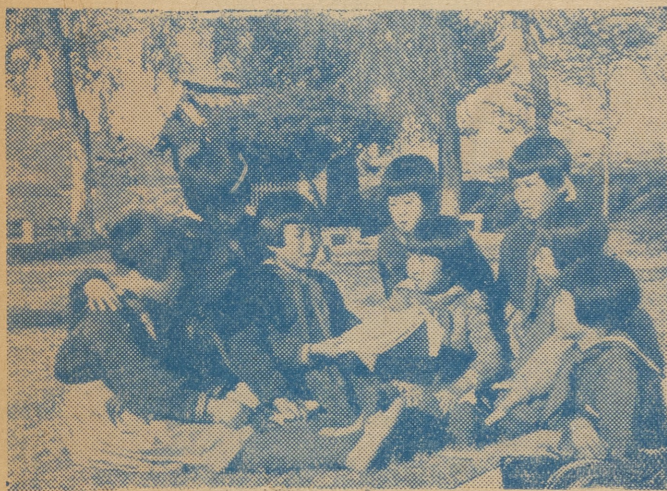
◇리 종 근◇

◇림 정 희◇

《새 결심》이라는 27분단 벽보에는 림 정희 동무네 반을 칭찬한 글이 나붙었습니다.

이 반 동무들은 금년 9월에 3학년에 올라 온 어린 동무들인데 아주 반 사업을 멋지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이 가지고 있는 반 사업 계획을 몇 장 뒤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일 (월) 어제 잡은 파리를 모은다 (한 영선이네 집에)
20일 (화) 저녁 때 함께 토끼풀 뜯으러 간다 (자남산에)
21일 (수) 《물 쌍둥이》 발표 (리 순복이가 읽고 말한다)
22일 (목) 학교의 선거 선전대에 함께 참가하여 시내를 돌며 선거 선전한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25일 (일) 반 모임 (리 영숙이네 집'일을 도와 준다)

오늘은 한 영선이가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언제나 영선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차례차례 자기들이 읽은 책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세째번 주일 계획입니다.

정희네 반에서는 일요일마다 반 모임을 가진답니다. 모임에서는 지난 주일 한 일을 간단히 총화짓고 다음 주일 계획을 세운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반원들은 서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놓습니다. 내 놓은 의견 가운데서 의논이 맞은 일들을 계획 세우고 계획서에 따라 한 주일 동안 재미 있게 지낸답니다.

영선이는 자기 집 건넌방에 계시는 과학 교재 협동 조합 아저씨한테서 협동 조합 뒤'산에 여러 가지 식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 모임 때 영선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곳에 가는 것이 어떻냐고 제의했습니다.

반 동무들은 자연 교과서를 가지고 그 곳에 갔습니다. 참말 가지가지의 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식물 표본도 만들고 즐겁게 놀고 왔습니다.

한 번은 영숙이가 직물 공장에 견학 가자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한 번 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에게 안내해 달라고 하자》, 그들은 영숙이 어머니의 안내로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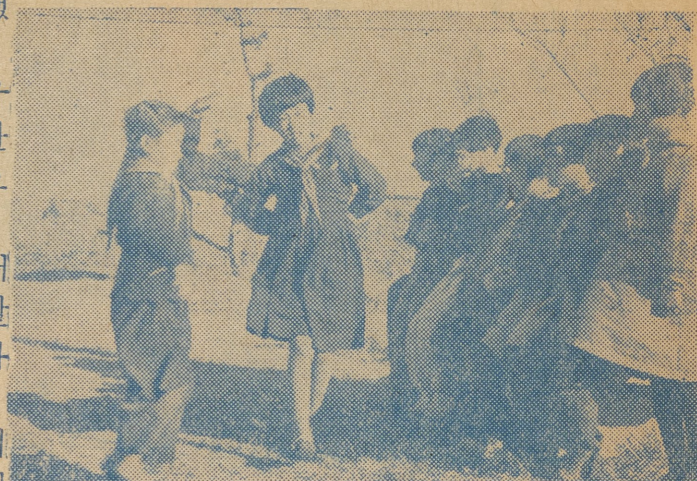
이렇게 이들은 재미 있고 유익한 일들을 생각해 내서는 반 사업을 재미 있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분단 위원회로부터 《파지는 무엇에 쓰이는가》를 알아 가지고 분단 모임 때 발표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정희네 반에서는 곧 이 문제를 가지고 반 모임을 가졌는데 제지 협동 조합을 견학하기로 의논이 맞았습니다.

반 동무들은 이 견학에서 파지가 새 종이로 되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 동무들은 견학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분단 모임에서 훌륭히 발표했습니다.

이 반은 분단에서 맡기는 일도 잘 하지만 반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도 곧 모임을 열고 의논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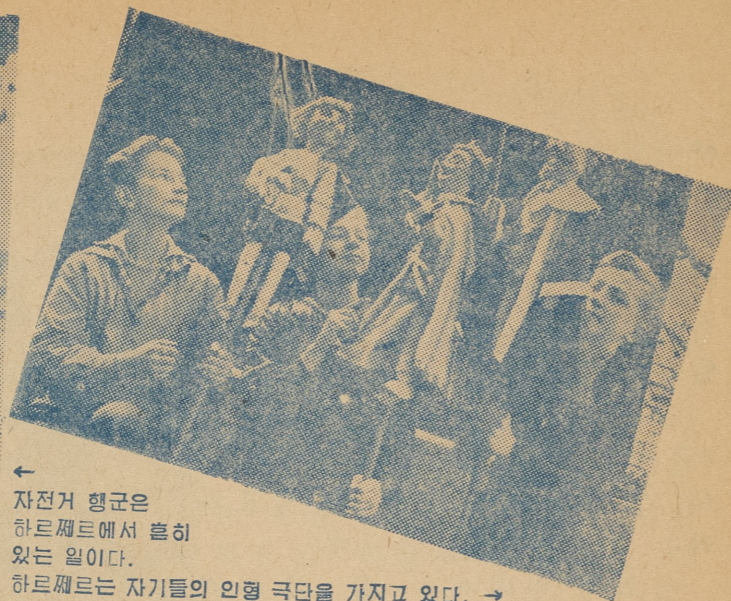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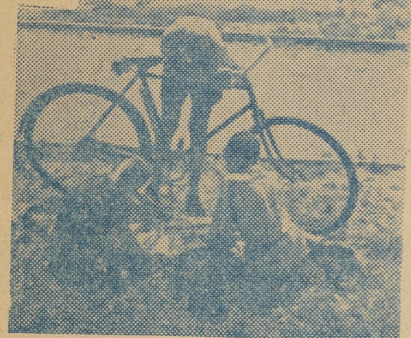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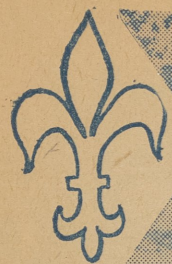
정희는 분단 위원장 최 준자를 자주 찾아 가서 자기 반 사업에 대해 의논합니다. 그러면 준자는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줍니다.

반에서 이름난 어린 무용가인 박 찬옥이와 리 정자는 쌍무 《노들 강변》을 잘 춥니다. 그러나 이들 뿐만 아니라 모두 무용에는 선수들입니다.

—◇—

하루는 수업 시간에 경숙이와 순복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큰 소리로 웃어 대서 담임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방과 후 반에서는 모임을 가졌는데 두 동무를 한 자리에 앉히지 말데 대하여 선생님께 제의했습니다.

이들의 반사업에 대하여 이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족해 하시며 《학교에서는 이 반이 우수하다고 1년간 총화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반장 정희는 교장의 상장까지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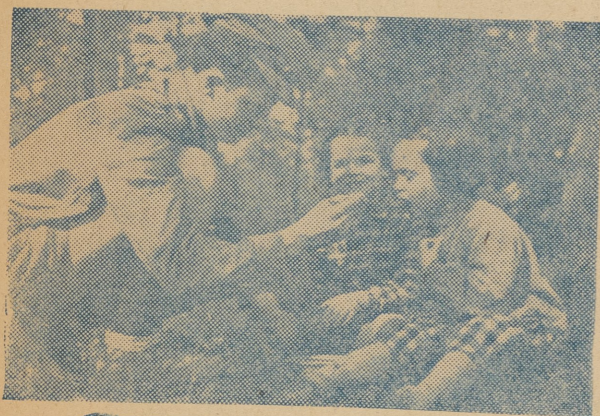
개성시 선죽 중 학교 대
27분단 1반에서

←
자전거 행군은
하르제르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하르제르는 자기들의 인형 극단을 가지고 있다. →

형제 나라 파란의 소년들

◇ 에찌 끌리샤 ◇

파란 소년들은 자기들의 소년 단체인 하르제르 동맹을 가지고 있다. 하르제르 동맹에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들이 들어 가며 그 중 11세까지의 아주 어린 소년들은 쥬호라는 조직에 망라된다. 이것은 년령에 맞게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르제르 동맹에 든 150만 소년들은 사회주의 파란의 훌륭한 건설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힘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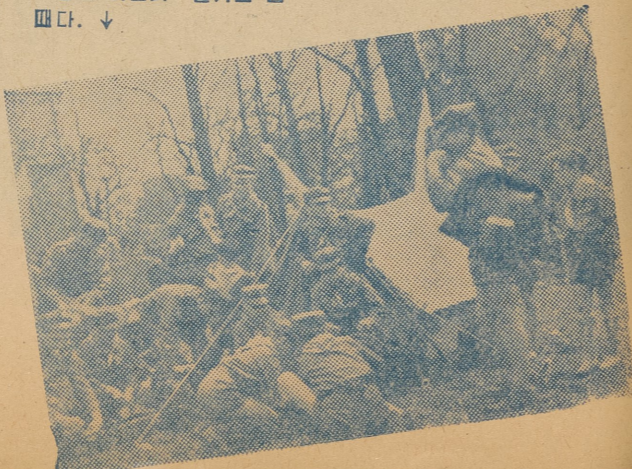
ZUCH

↑하르제르에 어린이들이 자주 찾아 온다. 하르제르는 어린애들을 친절하게 도와 준다.

파란의 하르제르의 소년들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

하르제르의 소년들은 꾸준히 학습하며 조국 산천으로의 유람을 조직하며 사회적 유익한 일들을 훌륭히 하고 있다.

하르제르에서 조직하는 유감은 보통 아주 짧으며 때로는 45분 가량이나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은 거의 하르제르 모임을 하는 시간만큼 하다. 그러나 여름이면 천막과 남비를 가지고 파란의 가장 아름다운 구역을 며칠씩 려행한다.

소년들은 이 유람 생활에서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에 대하여 더 잘 알려고 노력한다. 이리하여 하르제르는 소년들을 인민 파란의 훌륭한 공민으로 키우는 학교로 되고 있다.

야영은 이들의 즐거운 한 때다. ↓

매년 하르제르에서는 여름 겨울 체육 대회가 열린다. 전체 단체들에서는 이 체육 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 사업에 바쁘다.

파란 군대는 하르제르에 많은 것을 도와 준다. 파란 군대가 보내준 단파 무전기를 조절하고 있다

하르제르 단체들은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책들과 인형극을 준비하기도 하며 나이 든 소년들은 농촌에서 풀베기와 추수할 때에 농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연예와 놀음'감을 준비한다. 아동 공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군중 놀음과 유쾌한 유회들을 준비하며 출현한다.

이렇게 하르제르의 소년들은 귀여운 어린 동생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하르제르 소년들의 하는 일을 묘사하자면 크다란 장편을 가지고서도 모자란다.

몇해 전에 하르제르 신문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 놓았다. 《공원에 꽃을 더 많이 심고 우리의 땅을 푸르게 가꾸자》 그리하여 마을과 거리와 도시 공원들은 하르제르 소년들의 로력으로 빛났다. 집집마다와 광장마다에는 아름다운 꽃들, 새'파란 풀, 관목과 과수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하르제르의 소년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자기 조국에 복무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유 희준 역)

↓명랑한 하르제르 동맹원들

↑하르제르 뽀드 분대는 행군로를 개척하고 있다.

말로만 떠드는 《불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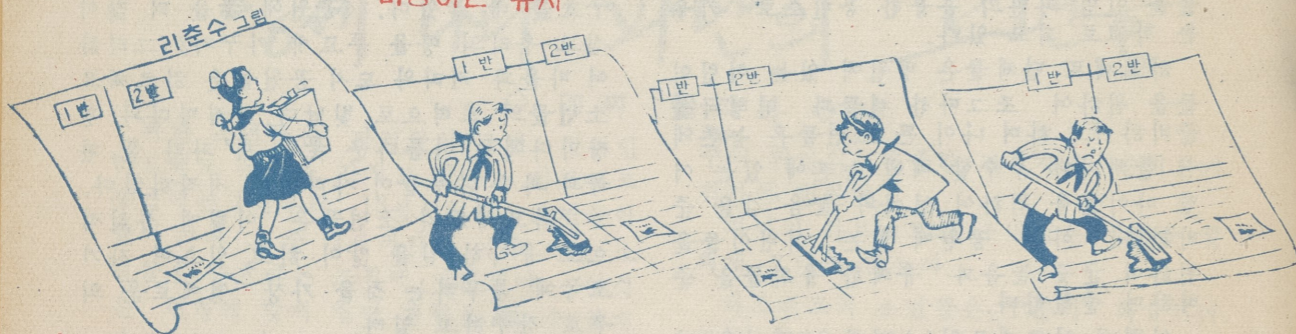
1. 에잇 추워-- 좀 더 이글이글 달궈야지
2. 나무도 미리 녹여야 해!

《내 친구야》

《까마귀 사촌》--몸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을 까마귀 사촌이라고 한다.

까마귀—내 친구야 네 손과 내 발이 갈구나!

려행하는 휴지

거짓말 쟁이

나오는 사람

창호 (초급반 1학년)
창국 (초급반 1학년)
인봉 (초급반 1학년)
석철 (인민반 2학년)

창국 (책 가방을 메고 왼쪽에서 등장)

창호 (뒤따라 뛰여 들며) 창국아!

창국 (획 뒤돌아 보며 시끄럽다는듯 걸음을 멈추며) 뭘 그래?

창호 너 왜 어제 식수하러 나오지 않았니?

창국 (머뭇거리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가 아파서 못 갔어.

창호 그럼 그렇다고 알려 줘야지… 우리 분단 동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하구 인봉이가 안 나오기에…

창국 뭐! 인봉이두?

창호 그러나 그앤 어머니 병으로 못 나온다고 련락해 주었어.

창국 그래?!

창호 (생각난 듯) 잠간 기다려, 내 2학년 꼬맹이를 데리구 올게 같이 가자 (오던 길로 퇴장)

창국 응 (생각에 잠긴다)

우수운 이야기

형의 2점과 동생의 5점

아버지--경철이는 산수도 5점 맞았는데 경수 넌 왜 2점을 맞았니?

경 수--그까지 인민 학교 산수… 중학교 산수야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아버지--그것 참! 그럼 너네 반 애들은 다 2점 맞았겠구나…

영환

편집부에 만화를!

그림 페지는 앞으로 독자 여러 동무들의 그림 페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 여러 동무들은 소년단 생활에서 보게 되는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내용으로 한 그림과 반드시 고쳐야 할 그릇된 행동을 비판한 그림, 만화를 많이 보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짧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소년단》 편집부)

인봉 (왼쪽에서 등장) 창국아 너 누굴 기다리니?

창국 아 인봉아 (싱글싱글 웃으며) 너 어제 식수하러 안 갔지?

인봉 응 못 갔어.

창국 어데 딴데 가 놀았니?

인봉 아니야 어머니 앓아서 못 갔어.

창국 (의미 있게 웃으며) 뭐 거짓말(놀어 붙이며) 어디 가 놀았지..

창호 (석철이와 등장)

석철 (창국이를 보자 졸라매는 소리로) 어제 딱지 달라!

창국 (놀래다) 무슨 딱지 말야 (하고 시침을 딴다)

석철 어제 내 딱지 가지구 따 주겠다구 하군 하루 종일 떼우기만 하구, 딱지 도루 달라 잉 (그냥 졸라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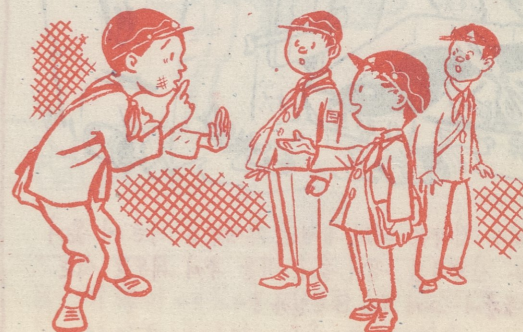
창국 (당황해서 눈을 껌벅이며 말하지 말라고 손을 입에 댄다)

창호 (바라 보고 섰다) 너 거짓말했구나 진종일 딱지치기만 하구.

인봉 씻 거짓말쟁이가 발이 저리니까 나보구도 호통쳤구나.

창국 (머리를 글적글적 고개 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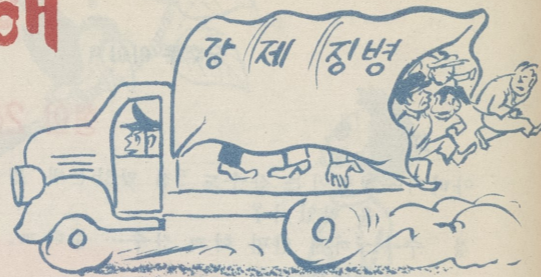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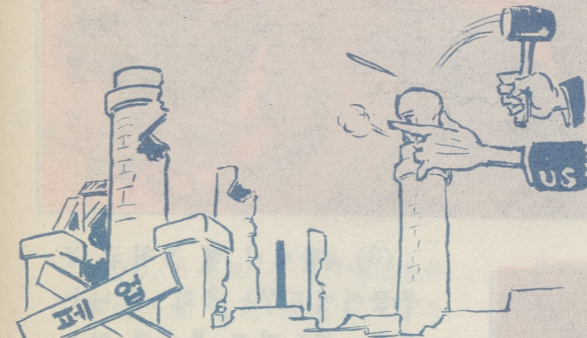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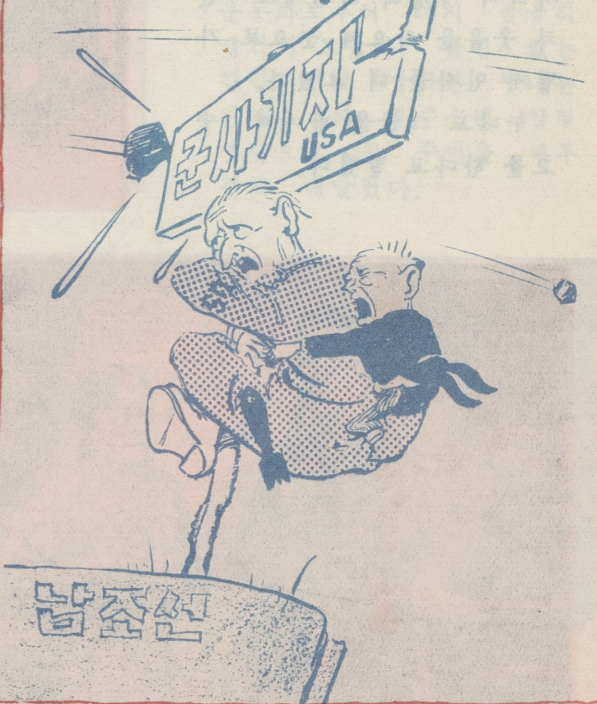
국립 음악 대학 예'과 2학년
소년단원 함 천봉

남조선의 한해

1, 리 승만 도당은 조국의 남쪽 땅을 미제에 팔아 먹는 매국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2,미제가 침략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에 옮겨 오고 신무기를 끌어 들여 개를 추겨 세운들 썩는 개 송장에 그게 무슨 소용일가?

3. 리 승만 도당이 미제의 대포밥을 끌어 모으려 하나 걸음마다 이 꼴이다.

4. 미제는 늙은이고 어린이고 할 것없이 무턱대고 쏘아 죽인다. 그런데 리 승만 도당은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5,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착취 밑에서 남조선 근로자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의 자제들은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있다. 남조선에는 근로자의 자제들이 90여만이나 학교에 못가고 있다.

6, 미제가 주인 노릇 하는 남조선에서 날마다 늘어 가는 것은 연기 안나는 굴뚝이고 실업자 굶주림.....

7. 다 빼앗고 또 무엇을 빼앗겠는가! 절량 농가 100만호에 대한 구제 대책은 커녕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농민에 대한 략탈에 더욱 날뛰고 있다.

8, 이렇기 때문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인민들에게서 더욱 고립되였다.
놈들의 운명은 바로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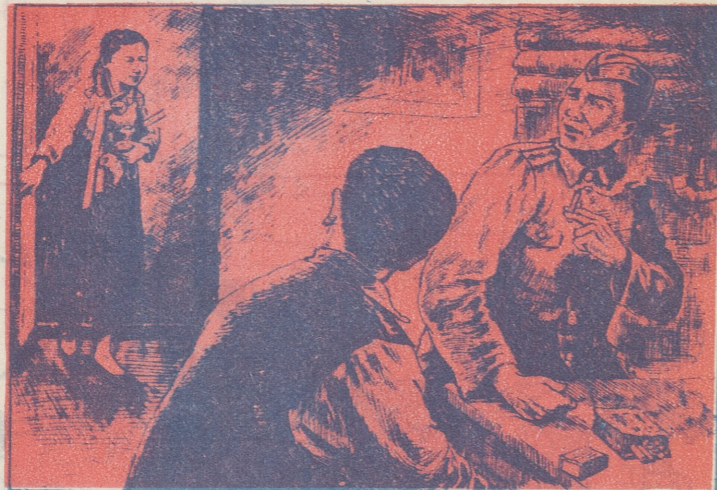
글 박정렬
그림 남현주

20세 되는 민청원 리 옥희 누나는 강원도 철원군 외향리 마을 자위대원이다.

(1). 작년 11월 어느 날 뜨개질 감을 가지고 이웃집에 놀려 간 리 옥희 누나는 토방에 낯선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데서 손님이 오셨나보지》 앞질러 이런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누나는 낯선 풀색 운동화에 다시 눈이 끌려 조심히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 섰다.

(2). 누나의 생각과는 달리 웃방에는 지원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무엇인가 소근거리고 있는 것이였다. 그들은 낯선 누나가 들어 오는 것을 꺼리여 당황해 하면서도 인차 웃음을 지으며 눈으로 가볍게 인사를 해 보였다.

누나도 그들을 반기며 수고를 한다고 말했다.

(3). 《할머니 웬 지원군 동무들이예요?》 옥희 누나는 밥을 짓느라고 분주해 하는 이 집 할머니를 도와 드릴 생각으로 부엌에 내려 서며 조용히 물었다.

《글쎄 쌀은 없이 돈 3,000원을 내 놓으며 빨리 밥을 지어 달라느만》.

《3,000원씩이나요?》 이렇게 되뇌이고 난 누나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지원군들을 조심히 살펴 보았다.

(4). 《지원군 동무들은 언제나 쌀을 가지고 다니는데…》

누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옷차림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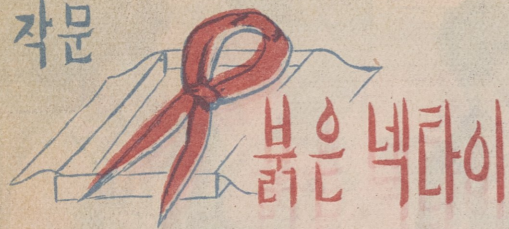
지원군 군관 복에 전사 모를 쓰고 권총을 찬 모양도 어덴가 지원군 동무들과는 달리 이상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문밖을 자주 내여다 보는 모양도 수상했다.

(5). 리 옥희 누나는 물이 많다고 이 집 할머니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물지게를 메고 물 길러 나오는 척하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누나는 풀색 운동화로부터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틀림 없는 간첩이라고 생각한 누나는 한시 바삐 분주소에 알릴 생각으로 두 주먹을 바루 쥐고 내달렸다.

(6). 이윽고 두 《지원군》은 무럭무럭 김이 오르는 밥상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밥 먹을 사이가 없었다. 누나의 련락을 받고 당도한 내무원 아저씨들 앞에 손을 들고야 만 것이다.

《지원군》으로 가장한 두 놈은 공화국 북반부의 군사 비밀을 탐지하며 경제 건설을 파괴할 임무를 맡고 기여든 간첩놈들이였다.

저녁 6시…《어린이 시간》에는 가끔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로부터 보내 온 편지가 소개되군 합니다.

《평양에 사는 애들은 얼마나 좋을가! 아마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곳이니 그곳으로 많이 편지를 보내겠지?》하고 나는 그 애들을 부러워 했지요. 소년 신문을 보면 청진이나 흥남의 소년단원들에게 오는 편지도 있긴 하지만…

이 곳 남포에는 아직 없으니까요.

우리는 로어를 배우고 있으나 아직 쏘련 삐오네르들이 직접 쓴 글씨는 못 보았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말하기를 《쏘련 동무들의 글씨는 정자가 아니라 흘려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볼 수 없대》라고 말하겠지요.

《사실일가? 그 애들은 Ж자를 어떻게 쓸가? 또 어떻게 학습하며 무엇을 배울가?…》이렇게 나는 늘 쏘련 삐오네르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동무들은 통신원 아저씨가 방금 가지고 오신 자그마한 꾸레미를 둘러 싸고 야단 법석이였습니다. 나도 무엇일가? 하고 바싹 다가 섰습니다. 그 꾸레미에는 굵은 글씨로 로어가 씌여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로어를 배우는 나로서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남 포 고 중 원숙 신》하고 더듬 더듬 읽고난 나는 《야!》하고 껑충 뛰였습니다.

그것은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에게서 온 선물과 편지였습니다.

《빨리 헤쳐 봐!》하고 나는 서둘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숙 신》이란 애가 우리 학교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뜯으려던 손을 멈짓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뿐이였습니다. 동무들의 얼굴에는 서운한 빛이 서리였습니다— 《원숙 신》이란 애가 누굴가? 그 애는 얼마나 좋을가?…

그런데 아니 도까비 감투 같은 소식이 뛰여 들겠지요.

《야! 신 원숙이 만세, 신 원숙이께다 우리 분단께다》하고 선생님에게 물으려 갔던 애자가 떠들썩 하였습니다. 쏘련에서는 이름과 성을 반대로 부르기 때문이라나요.

잠잠하게 서 있던 신 원숙 동무는 하도 좋와서 눈물을 막 흘렸고 애들은 저마다 《애자 김》《매자 박》하고 떠들썩 하였습니다.

꾸레미 속에는 차곤차곤 접은 붉은 넥타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우동생인 신 원숙 동무가 먼저 매 본 다음 53 명의 우리 분단 동무들이 차례로 매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동굴동굴한 로어가 깨끗이 씌여 있었는데 로어 선생님이 번역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리 실험실에서와 교재원과 실습지를 가꾸면서 훌륭히 배우고 있답니다.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거든 소중히 여기라
　그것은 우리의 기'발과 같은
　　빛갈이 아니냐!
그 기'발 밑에 병사들은 싸움터로 갔고
　형님들과 아버지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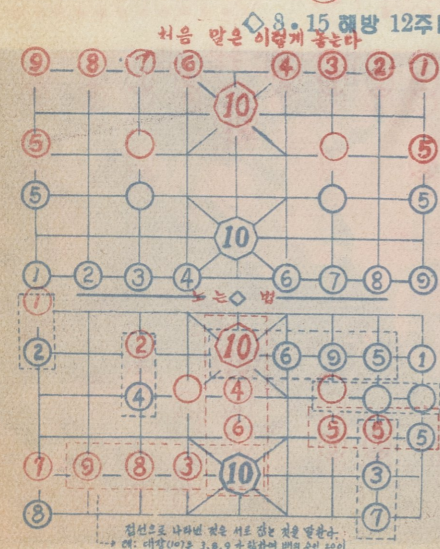
넥타이를 매거든 얼굴에
　더 밝은 빛을 내여라.
얼마나 많은 가슴 우에서
　그것은 총탄에 뚫어졌던 것이냐!
삐오네르 넥타이
　그보다 더 정다운 것은 없다.

—나는 슬그머니 주름 잡힌 넥타이를 쓰다듬었고 매자 동무는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넥타이를 끄집어 내여 목에 매였습니다.

평남 남포 고중 초급반(2의 4)
김 영자
(남포 고중 문학 크루쇼크 작품집에서)

(오) (락)

◇8·15 해방 12주년을 기념하여 교원 신문사에서 현상 모집한 아동 유희 가작 당선 작품◇

어린이 장기

처음 말은 이렇게 놓는다

1. 준비할 도구

ㄱ. 장기판 1개, 말 26개,

ㄴ. 말은 한 편에 13개(색을 다르게)인데 큰 말(대장 《10자》) 1개, 병사 10개(1, 2, 3, 4순 수'자를 쓴다. 그 중 5자 두개), 련락병 2개(수'자 없음),

2. 노는 방법

ㄱ. 모든 말은 한 번에 한 눈 씩 선을 따라 직선으로 앞, 뒤, 옆으로 움직인다.

ㄴ. 대장(10)은 표시한 지휘부 안에서만 활동한다.

ㄷ. 련락병은 대장이나 병사의 길을 방해할 뿐 대장이나 병사를 잡지 못하며 또 잡히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서로 련락병 두 개를 일직선상에 놓았을 때 적을 잡는다.

ㄹ. 2, 4, 6, 8, 병사는 그 수의 절반 수가 되는 병사를 혼자서 잡을 수 있다. (례 8자 병사 앞에 적 4자 병사가 놓일 때) 대장은 5를 혼자서 잡을 수 있다.

ㅁ. 수'자 적은 병사가 수'자 많은 병사를 잡으려면 2개, 3개의 힘을 합하여 그의 2배의 수가 되여야 잡을 수 있다.

례 8자를 잡으려면 그 일직선 상에 자기 말 3, 4, 9 병사 또는 9, 7 병사가 가지런히 놓여야 한다.

ㅂ. 자기 말보다 절반되는 수의 적 말이 먼저 다가 들면 한 번 물러 섰다가 다음 자기 차례 왔을 때 다가 가며 잡는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자리를 뜨면 못 잡는다.

3. 승부 결정

ㄱ. 대장이 잡히면 진다.

ㄴ. 대장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진다. 즉 1, 2, 5자와 대장이 남는다면 적의 왕의 배의 수가 되지 못하니 진다.

ㄷ. 서로 량편이 대장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판에 남은 수를 합하여 많은 편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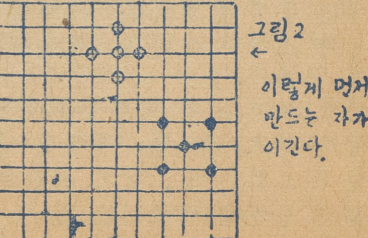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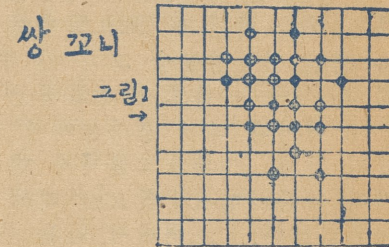
쌍 꼬니

1. 준비할 도구

판 (10×10)1개, 말 20~30개씩

2. 노는 방법

말을 서로 한 개씩 놓아 가며 그림 2와 같이 먼저 만든 자가 이긴다.

(건설 대학 박 동진 작)

내가 한일

나는 새 학기를 맞으면서 영예롭게도 대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그러나 대 위원장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나는 처음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나는 다만 대 위원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분단 열성자들에게 알려 주기만 하면 내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대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집행되지 않았다. 분단들에서는 지각하는 동무들과 밤마다 영화관에 다니는 동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크루쇼크들도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지도원 선생님에게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물어 보고 또 지난 날의 대 위원장이던 민청원 한 경춘 누나에게서 사업 경험도 들으면서 내가 할 바를 알기에 노력했다. 특히 나는 《소년단》 잡지와 소년 신문에서 다른 학교 대의 사업 경험을 본 받기에 노력하였다.

우선 나는 대 위원회 사업을 잘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토요일마다 대 위원들과 분단 위원장들을 모아 한 주일 동안에 해 온 일들을 반드시 총화하군 하였다.

그 때마다 나는 분단들에서 그 동안 진행된 일과 크루쇼크들에서 한 일들을 일지에 기록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분단들에서 진행된 훌륭한 일들은 제때에 대 벽보를 통하여 소개하며 다른 분단에서 모범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각 분단들에서는 후방 가족들을 원호하는 일, 불쌍한 남조선 소년들을 원호하는 일, 국가 재산을 애호하며 책상, 걸상들을 애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우리 나라 선조들의 애국 전통을 연구하는 재미나는 모임들이 광범히 조직되게 되였다.

한편 대 벽보 편집부에서는 벽보를 통하여 여러 동무들에게 우리 고향의 력사를 알려 주며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을 그림 극으로 보여 주는 사업도 하게 되였다.

내가 한 일은 극히 적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대 위원회 사업을 더 훌륭히 조직하며 동무들의 기대에 어김 없이 대 사업을 잘 하겠다.

자강도 화평군 장백 중학교
대 위원장 김 영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나는 작년 4월, 3학년 때에 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 내가 처음 입단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처음 매던 때도 기뻤지만 며칠이 지나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되여 붉은 줄을 두른 열성자 표식까지 달게 되였을 때의 기쁨은 더욱 큽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우리 분단에서는 갑자기 《열성자들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나는 성이 난 목소리로 《…키가 큰 김 선자, 윤 연화, 정 춘화 동무들은 열성자들을 깔보며 열성자들이 분단 사업을 잘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 반성하십시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리에 돌아 왔을 때 《반성은 제가 하지… 그럼 우리 분단이 다른 분단처럼 재미 있게 사업한단 말인가 벽보두 없구 계획서도 없이 사업하는걸》하고 수근거리는 김 선자 동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튿 날 아침에 분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죄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열성자들이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동무들과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이 날 집에 돌아 온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 받은 것을 기뻐만 하고 분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자습을 시키고 동무들이 떠들지 않게 하는 것, 청소를 잘하게 하는 일이 분단 위원장이 할 일인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왜 나를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지도원 선생님에게 자주 찾아가 모를 것을 묻기도 하고 《소년단》 잡지와 소년 신문에 나오는 다른 학교의 소년단 사업 경험들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웃반 동무들이 가지는 모임에도 자주 참가하며 배우군 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분단 모임도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 가며 재미 있게 가질 계획을 세우게 되였고 분단 사업에 점점 자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축구회》란 제목으로 반간첩 모임을 가졌는데 그 전에 《열성자들을 따르자》란 모임을 준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던 때와는 달리 아주 재미 있게 가졌습니다. 미리부터 소설 《축구회》를 읽고 감상문도 벽보에 실리면서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동무들은 얼마나 재미 있게 토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열성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사업하게 되자 뒤에서 이야기하는 동무들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열성자 선거 때 동무들은 나를 또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했습니다.

나는 이런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열성자들이 동무들의 모범이 되여 사업하기 위해서는 동무들보다 무엇이나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강원도 고성 제2 중학교 대 9분단
위원장 리 길명

분단 벽보 주필로서

나는 지난 해에 분단 벽보 주필로서 일해 온 것을 돌이켜 봅니다. 분단 위원장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 분단 제4반 반장인 김 인자 동무가 나에게 만화 한 장을 그려 왔습니다. 그것은 학교 동물원을 정리할 때와 대청소할 때 뺑소니를 친 박 경자 동무를 비판한 만화였습니다. 나는 이 만화를 곧 벽보에 싣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경자 동무가 반드시 비판 받아야 할 동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경자 동무를 비판하는 것을 꺼리였습니다.

벽보에서 비판 받으면 어떤 동무들은 나를 찾아 와서는 행패를 하군 했으니까요.

우리 벽보 편집부의 동무들까지도 칭찬하는 글은 저마다 쓰겠다면서도 비판 기사 쓰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벽보 주필이라는 위임을 맡고 남의 잘못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다니… 분단 사업이 틀려 나가도? 얼마나 비겁한가…》 이렇게 다시 생각한 나는 참다 못해 이 문제를 분단 위원회에 내 놓고 나의 잘못과 벽보 편집부 동무들의 그릇된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동무들은 나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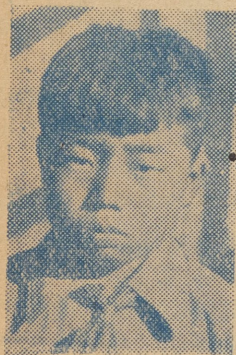
이리하여 경자 동무를 비판한 만화는

한 해 를 보 내 면 서

그 다음 호 벽보에 나붙게 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경자 동무가 나를 찾아 오더니 《얘 어째 그렇게 남을 망신시키는거냐? 네나 잘 하려마》하며 투덜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 혼자서 일러 주다 못해 분단 열성자 모임을 열고 여러 동무들이 경자 동무가 그릇되게 행동한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 동무들의 충고를 받은 경자 동무는 그 때야 자기 하나의 잘못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전체 분단 동무들에게 얼마나 방해를 끼쳤는가를 깨닫게 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벽보 편집부 동무들이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자 동무의 이 뉘우침을 다시 벽보에 실었습니다.

지금도 경자 동무는 가끔 이 이야기를 하군 한답니다.

함북 길주 제11 중학교 대 제2 분단
위원장 김 채옥

내 잘못부터 고쳐 가지고

나는 반장으로 일한지 1년이 됐어요.

내가 맡은 반 동무들은 나까지 여덟 명입니다.

처음 내가 반장이 될 때 최우등, 우등, 보통, 락제 이렇게 각각 2명씩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락제생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반 동무들은 한 사람도 앓지 않았습니다. 아마 반에다 철봉과 평행봉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매일 조기 체조를 하며 몸을 단련한 까닭인가봐요.

지금 우리 반 동무들은 동네에서 아주 례절이 밝은 소년단원이라고 어른들께 칭찬 받고 있어요. 우리는 례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반 모임을 가졌어요. 누구의 집에 놀러 가도 그 집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군 한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아니예요. 서로 패가 갈려서 제 의견대로 하자고 했어요. 특히 김 철이는 내가 하자는 일을 늘 반대하군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만 김 철이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리 응구가 내 잘못에 대하여 낱낱이 타일러 주었어요. 분단 위원인 응구는 우리 반에 있는 동무이지요.

나는 응구의 말을 듣고서야 내 잘못을 깨달았지요. 내 말 잘 듣는 형렬이나 용남이와는 잘 놀면서 학업 성적이 비슷비슷한 김 철이와 놀지 않은 것. 김 철이가 내 하자는 일에 반대하면 덮어 놓고 그를 욕한 것 등 내 잘못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 모임 때 나는 동무들 앞에서 내 잘못을 모두 내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김 철이도 《아니야 나에게도 잘못이 많아…》하면서 앞으로 힘을 합해 반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어느 날 우리 반은 2반 동무들과 축구 시합을 했어요. 나는 김 철이와 뽈 련락을 자주 하였지요.

우리는 이 날 축구에서 이겼지요. 김 철이는 나를 보고 참으로 기뻐했어요.

우리 사이는 이렇게 차차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결함이 있어요. 욕심 많게 계획을 많이 세워 놓고 그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직물 공장 견학은 여러 번 미루어 오다 끝내 못 갔어요.

그리고 나는 반 동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보지도 않고 내 마음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미 있는 일은 많이 못했어요.

개성시 만월 중학교 대 20분단
1반 반장 주 기동

몽고 옛이야기

아난다의 행복

초원 한 복판에 두 포막이 서 있었습니다. 한 포막에는 가난한 유목부가 살고 다른 포막에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저마다 아들 하나씩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은 《아난다》라 하고 부자'집 아들은 《붐바》 라고 불렀지요.

아난다가 열 살이 잡혔을 때 아버지는 《도회지로 가서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읽기 쓰기를 배워라. 유식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느니라. 불행이란건 유식한 사람을 멀리 피해 다니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기 전에 아난다는 이웃집 붐바를 찾아 가서 공부하러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붐바는 손을 내 흔들면서 《행복은 돈에 달린 것이지, 지식에 달린 것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에겐 양이 수천 마리나 되는데 공부는 해서 뭘 해? 난 그러지 않아도 행복한걸 먹고 싶은대로 먹고 입고…》

이렇게 말하면서 붐바는 홱 돌아서 버리는 것이였습니다.

아난다는 도회지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네 집에서 낮에는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중에는 꾸준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아난다는 글을 잘 읽게 되였습니다. 글 쓰는 솜씨도 여간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난다는 집으로 돌아 와서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말씀 대로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 누우시면서 아버지는 《래일 너는 다시 도회지로 가거라. 너는 퉁소 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훌륭한 음악가는 마술쟁이보다 강하느니라. 음악가는 악한 사람들을 웃게 할 수가 있고 잔인한 마음씨를 인자하게 만들 수가 있다》하시였습니다.

아난다는 아버지가 사시는 포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이 이르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또 붐바에게 들려서 같이 가기를 권하였습니다.

《내가 퉁소 부는걸 배워 뭘 하겠니? 악사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 올 수 있는걸!》하면서 화를 내였습니다.

도회지로 온 아난다는 다시 관리네 집에 갔습니다. 낮에는 심부름을 하고 날이 저물어 주인이 잠자리에 들면 아난다는 도회지 저 편 끝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늙은 음악가가 살았지요. 퉁소를 잘 부는 늙은이였지만 글은 읽을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 다오. 그럼 나는 너에게 퉁소 부는 법을 배워 줄테다》로인은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룩맥날 밤을 음악가네 집에서 새우다 싶이 하였습니다. 비도, 추위도, 눈 보라도——그 어떤 곤난도 공부하러 다니는 아난다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불게 되였으니,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글을 배워 주어서 매우 고맙다》로인은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난다가 부는 퉁소 소리를 듣고 몹

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래일 날이 밝거든 다시 도회지로 떠나거라. 너는 장기 두는 법을 배우는게 좋겠다》 한 주일이 지나서 아난다는 그리운 고향의 초원을 떠나 갔습니다. 그것을 안 붐바는 《아난다가 집에 돌아오면 곧 쫓아내는걸 보니 아난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보기 싫은가부다!》 하였습니다.

아난다는 륙백일 동안 장기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솜씨였든지 아난다를 당해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행복감에 설레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크나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도회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늙은 아버지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가 사시던 포막은 비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난다를 본 비적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 도적을 떠나는데 널 데리고 가겠다. 너는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안 길테면 목을 베겠다》.

비적들은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아난다는 강제로 끌려 갔습니다. 아난다가 뒤를 돌아 보니 붐바가 뒤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붐바도 비적들에게 잡혀 같이 끌려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또 갔습니다. 호수'가에서 쉬여 가게 되였습니다. 비적들을 살펴 본 아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적들은 모두가 하나 같이 사납게 생긴 얼굴들이였어요.

바로 이 때 아난다는 《훌륭한 음악가는 마술쟁이보다 강하느니라. 음악가는 악한 사람을 웃게 할 수 있고, 잔인한 마음씨를 인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아난다는 남 몰래 갈'대 한 대를 꺾어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비적들이 다시 길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난다는 피리를 꺼내 들고 처량한 노래'가락을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잘 불었겠습니까! 어찌도 잘 불었든지 비적들은 자기들이 어델 가던 길인지도 잊어 버리였습니다. 처량한 노래'가락을 듣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무섭던 비적들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져 갔습니다.

아난다가 피리 부는 것을 그치자 비적들은 《또 불어라! 부느니껏 불어라! 이런 좋은 음악은 듣다 처음일세!》하고 소리지르는 것이였습니다.

아난다는 다시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새 떠 오른 해가 머리 우에서 환하게 내려 비칠 때까지 불었지요.

이 때 비적 두목은 말하였습니다.

《너는 피리를 기특하게 불었으니 놓아 준다. 무얼 청할게 있으면 말해 봐라》.

아난다는 붐바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애도 놓아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한 필씩 주십시요》.

두목은 붐바에게 물었습니다.

《넌 뭘 할 줄 아냐?》하고

《아무 것도 할줄 몰라요》하는 것이 붐바의 대답이였습니다.

비적들은 좋아 날뛰였습니다.

《넌 놓아 주지 못하겠다.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는 훌륭한 도적감이거든!》

아난다는 홀로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큰 마을에 다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 나갈지 막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복판에 커

다란 흰 포막이 있었지요. 그 포막에는 단번에 백 사람을 먹여도 남을 량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막의 주인은 부자였는데 온 마을에서 글을 쓸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 부자 하나 뿐이였습니다. 그 집에서 한 주일만 일을 하여 주면 부자는 쪽지 한 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 쪽지만 가지면 흰 포막에서 약간의 고기와 기름과 소금과 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아난다는 그런 쪽지를 백장 써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지요. 굶주리던 사람들은 흰 포막으로 가서 쪽지를 보이고 량식을 깡그리 가져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날 난생 처음으로 배 불리 먹어 보았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이젠 빨리 여겔 떠나는게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부자놈이 자네를 붙들어서 말꼬리에 매달아 놓을지도 모르니!》하고 아난다에게 일러 주는 것이였습니다.

아난다는 착한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웃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슬픈 얼굴 표정을 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 소리라고는 들을 수가 없고 웃는 얼굴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왜들 슬퍼하는가 하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우리 나라 임금은 장기놀이를 몹시 즐겨 하신다우. 임금이 부하들을 시켜 매일같이 사람들을 잡아 들여서 장기를 두게 하는데 장기에서 지는 날이면 목을 잘리우는 판이니 어찌 근심하지 않겠소》하는 것이였지요.

아난다가 궁궐 앞에 가 보니 저만침 떨어진 곳에서 웬 사람이 굴적굴적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았더니 그것은 붐바였습니다.

《왜 우냐!》하고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난 하느님께 노여움을 샀어! 비적들한테서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빠져 나왔더니 이번엔 임금의 부하들이 나를 잡아다 놓고 임금님과 장기를 두라고 야단이니 이걸 어떻거면 좋아?》.

《그거 야단 났군! 네 모가지가 달아 나겠네!》하고 아난다는 말하였습니다.

붐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것이였어요.

《장기 두는 법을 배워 주렴, 그러면 내가 임금한테 이길 수 있지 않을가》.

아난다는 대답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저버리기 쉬워도 좋은 것을 배우기는 힘들다는 속담을 넌 잊어 버렸구나!》.

이 때 임금이 나타나 궁궐 앞에 책상을 내놓으라 분부를 내리고 붐바와 마주 앉아 장기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붐바는 한번 어리석은 수를 쓰고 두번 어리석은 수를 쓰고 세번째 수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붐바의 목을 베려고 번쩍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 때 아난다가 썩 앞으로 나서면서

《잠간만…저 사람의 사형을 잠시 물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한번 장기를 두게 해 주십시요. 만일 제가 지거들랑 우리 두 사람의 목을 단번에 잘라 주시요》.

《좋아——고약한 임금은

코를 벌름거리며 웃었습니다——아마 너는 대가리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싫증 난 모양이지! 앉아라 한 판 놓아 보자!》.

아난다는 장기판에 마주 앉아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며는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금은 크게 웃으면서

《아무게한테나 장기에서 져 본 적이 없는 내가 너 같은 꼬마한테 질리야 만무지! 네가 이기기만 한다면 너의 부탁은 어떤 것이든 죄다 들어 주마》하였습니다.

아난다와 임금은 장기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에는 말타고 온 사람 걸어 온 사람들로 빼곡 들어 찼습니다. 한 시간도 못 되여 아난다는 임금을 이겼습니다.

임금은 잔뜩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며는 하무런 청도 들어 주겠느라고 제 입으로 약속한 일이 있으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할 것은 단 한 가지—이 나라에 형벌이 더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아난다는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인민들은

《그것은 옳은 청이요. 옳은 청이요!》 하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별 수 없게 된 임금은

《지금부터 내 나라에서는 일체 형벌을 금한다》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붐바는 아난다에게 달려가 얼싸 안고

《넌 임금한테 이겨서 여간만 행복하지 않겠구나?》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것은 아버님의 말씀을 잘 따른 까닭이요.

내가 행복한 것은 어린 때부터 부지런히 배운 까닭이요.

내가 행복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잔인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때문이다》.

쏘련 소년 잡지 《삐오네르》 1954년 4호에서

계 형 수 역

부탁의 말 두가지

(1) 작문을 많이 보내 주기 바랍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쓴 동요, 동시, 소설, 동화 등 작품보다는 작문을 더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동무들에게는 작품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작문을 쓰는 것은 알맞는 일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소년단 생활에서 자기가 한 일,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담은 작문, 일기 등을 많이 보내 주기 바랍니다. 동식물 관찰 일지 같은 것도 좋습니다.

(2) 공부하는 가운데서 의문 나는 문제나 소년단 생활에서 알고 싶은 문제를 보내 주십시요.

여러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문제는 잡지에 실어 대답하겠습니다.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리 원 우 리 동 무 송 정 우 신 진 균 최 윤 호

1957년 12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12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12호 총(99호)
발행소 민주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718 값 25원 80,000부 발행

1957년도 《소년단》 표지들